

함께 꿈꾸는 느티나무 한글학교



2014. 7. Reader is Leader! 글로벌 리더의 행복한 한글 공부



03	느티나무 돌봄이 느티나무 지킴이	김윤희 선생님/ 이진경 선생님 노훈 선생님/ 노옥남 선생님	
04	사진 1	한국어 말하기 발표회	
06	좋은 동시	정대희/조은/주아	
07	글쓰기 1	박지현/박우현/주재균/채규인/김민성 정인아/김노아/김애림/이영민/정다이야 정유진/김지훈/박조은/최준호	
14	사진 2	한국어 말하기 발표회	
16	글쓰기 2	도유현/박진한/설효빈/김도훈/김상훈 윤예나/정유나/박수한/박현/윤사무엘 도형탁/이유나/정유나/윤예나/박수한 윤사무엘/박현/도형탁	
38	사진 3	한국어 말하기 발표회/한국어 수업	
40	글쓰기 3	최준호/채정인/김도훈/정다이야 김지훈/장송이/김리아/이유나/설효빈 김애나/이유나/노지영/노지영/장송이 노한나/정인아/장송이/노한나	
56	제15회 재외동포문학상 초등부문 대상 / 미국에 사는 진돗개	노지영	
58	제3회 해외 한국어 교육자 체험 수기 우수상 / Korean Story Time	노옥남	

"한 국말 너무 too hard 해요." 이렇게 한국어도 영어도 아닌 말을 쓰던 아이들이 한국어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한글로 쓰여진 책을 읽고, 한국 고유의 음식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와도 친해지는 과정을 보며 마음이 부듯해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느티나무는 그저 한 언어를 정복하기 위한 학교가 아니라 한국의 정서를 책을 통해 배우며 찾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학생들과 책 안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기 위해 토론하고 나누며, 글로 생각을 적어가는 과정은 저에게도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런 노력과 열정이 모여 느티나무의 작은 READER들이 이 시대의 큰 LEADER가 되기까지 응원합니다!
/ 김윤희

느 티나무 지난10년을 돌아보며...

한국방송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단다." 라는 대사 뒤에, 우리아이가 "엄마, 어디로 turn around 했어?" 하고 되묻는 것이 걱정스러워 처음 느티나무를 찾았습니다. 한국책을 많이 읽을 수 있다는 안내에 다소 먼 거리였지만 무작정 등록을 하고, 그 후에 아이의 변화가 참 신기했었습니다. 한국 동요를 흥얼거리고 단어가 짧은 문장으로 다음에 좀 더 긴 문장으로 바뀌는 것이...

마침내 학교 교실에 한국책이 없다며 책을 가지고 가서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며 책을 사달라고 조르던 아이가 이젠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10년 동안 느티나무의 노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의 10년, 20년.. 더 많은 우리아이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욱더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 임성우 엄마, 이진경

10년이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느티나무 학생들이 바른 민족 정신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월드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도와주신 새수지교회 이병열 목사님과 문예원 오길주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큰 꿈을 이루는 느티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 노훈

큰 꿈을 안고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멈추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해맑은 아이들의 모습이 있어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Korean-American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며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무지개 색깔처럼 다양하고 고운 꿈을 꾸는 아이들에게 작은 디딤돌이 되어 주고 싶었고 이민 생활에서 좋은 선생님들, 좋은 부모님들을 만난 것이 축복이었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꾸준히 연구하며 성실하게 가르치겠습니다. / 노옥남



박우현 김이진
박지현 정대희 주아
김민성 주재균
채규인 조은





박조은 정유진 이영민
정다이야 최준호 김지훈
김노아 김애림 김도훈



사슴뽀뽀
강소천

사슴 아, 사슴 아!

네 뽀뽀는 언제 사슴 아?

사슴아 사슴아!

네 뽀뽀는 언제 꽃이 피나?



6.21.2014 정대호

나뽀뽀 나뽀뽀

오수 텍

6.21.2014.조인

나뽀뽀 야. 나뽀뽀 야.

꽃밭에서

무엇하니?

뽀뽀 농사지.

뽀뽀 만하니?

밤이면

되고 잠도 자지.



우산속
문밖.

우산속은엄마

품속감아요.

비방울들도

들어오고 싶어

두두두두야단

이지요.

6.21.2014. 주아

우리 가족
나 엄마 아빠 오빠
언니 동생 있어요.

나는 김치를 좋아해요.
엄마는 내 도시락을 싸요.



이름 : 박지연
학년 : K

학교 이름 : 노티 나무
2014.6.6

제목 : 우리 가족

나, 엄마, 아빠
동생



아빠
엄마
안아주면
좋아

아빠는
나는 장난감을 좋아해요
조아해요



동생은 사탕
좋아해요



우리가족 엄마 아빠
나 있습니다.

엄마는 책이
좋아해요. 리는
우리아빠는
저를 좋아해요.

나는 골프치는 거를

조아해요. K

주채균



채규인

아	침	에	이	에	나	서			
화	교		가	어	우				
오	후	에	는		피	아	노		
레	스	하	고		수	영	장	에	
가	어	요		남	새	가	터	익	서
밖	에		나	가	서		자	전	거
도		타	고		농	구	도		
했	어	요		맛	있	는		저	녁
밤	도		먹	었	어	요			



영양학

요-번 여름방학에

엄마랑 아빠랑

캠핑 갈거예요

그리고 연어콘 잡을거예요.

그리고 수영도 할거예요.

그리고 고래도 보고
싶어요.

정인아

내가 좋아하는 개

지는 정인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개 이름은 콜라입니다.

콜라가 Maltese입니다. 콜라가 너무

귀여워요. 내 개는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콜라가 사자장난감을 너무 좋아해요.

콜라가 Unicorn 장난감도 너무 좋아해요.

콜라가 내 친구들을 좋아해요. 콜라가

산책하는거 좋아해요. 우리 개는 땀을 많이

샤요. 우리 개는 사과를 너무 좋아해요.

콜라가 포도즙을 못먹어요. 콜라가 딸기도

못먹어요.

6월 24일

제 목 : 금요일

나는 일어났어요. 하지만, 늦잠을 잤어요. 그리고 나서,
피아노를 쳤어요. 드럼도 쳤어요. 나는 텔레비전을 봤어요.
컴퓨터도 했어요. "Minecraft" 게임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못했어요. 그리고, 나는 할아버지 집에 갔어요.
하지만, 나는 마루에서 잤어요.

6.21.2014

김애림

일어났어요. 오빠바도 일어났어요.
밥 먹었어요. 할아버지 차 타고 왔
어요. 할아버지 갔어요. 한글학교들
어 왔어요. 지금 공부해요.



이름 : 이영민
학년 : 1

학교 이름 : 느티나무

제목 : 여름 방학

여름 방학에 멕시코 갑니다.

가족 같이 갑니다.

우리 가족 같이 호텔에서 잡니다.

멕시코 가고 사촌집에 가요.

여행 가는 거예요. 2014.6.6

오늘 24일

우리 가족

다이아

우리 가족은 엄마랑고 아빠
있어요. 하고 개 세 마리 있어요.
강아지 이름은 로키(Rocky)하고 크로이
하고 로라이예요. 사촌 진언니하고
가비언니하고 이지(Cory)언니하고
노엘(Noel)하고 올리비아(Olivia)이예요.
숙고하고 삼촌있어요. 할머니하고
친할머니 이예요. 두형이고모하고
고모부 있어요.

우리 가족은 사촌이 다섯명있어요.
할머니 있어요. 할아버지 없어요.
요.

나는 우리 가족을 좋아해요.

이름 : 정유진 학교 이름 : 느티나무
학년 : 1학년

제목 : 여름방학

여름 방학에 샌디아고 갈 거예요.
막내이모 집에 갈 거예요, 그대
아주 게웠어요, 호텔에 갈 거예요,
세워랜드에 갈 거예요, 노는 데가 마
가 있어요, 세워랜드에 돌고래
샌디아고 주에 갈 거예요, 쇼볼
가주이랑 같이 갈 거예요, 재미
2014 6/6

이름 : 김지훈 학교 이름 : 느티나무
학년 : 2

제목 : 나는 아침 밥 먹었어요.

학교 갔어요.

재미 있었어요.

집에 갔어요.

나는 라면 먹었어요.

잘 잤어요.

그리고 한글 학교 갔어요.

숙제 안 했어요.

사탕 안 가졌어요.

나는 글쓰기 하고 있었어요.

여름 ♥ 방학

2학년 박조은

여름 방학에 캠핑을 갈 거예요.
엄마, 오빠, 나, 동생, 친구 하고
이모들도 가요. 스파게티, 머시멜
로 하고 밥을 먹을 거예요.
캐빈에서 잘 거예요. 낚시도 할 거
예요. 물안에도 갈 거예요.
재미있을 거예요. 저는 맨날
캠핑을 가고 싶어했어요.



이름 : 최주호 학교 이름 : 느티나무
학년 : 2/3

제목 : 여름방학

여름에 캠프만여, 많이 많이
갈 거예요. 캠프 혼자 (친구 만
수 있어요.) 갈 거예요. 캠프 가기
전에, 하와이 (Hawaii) 일주일 갈 거예요.
엄마, 아빠와 친할머니랑 같이
갈 거예요. 마칩내, 살이 많이
비배 거예요.

2014.6.6



박진한 도유현 김리아
박수한 윤예나 설효빈
도형탁 윤사무엘 채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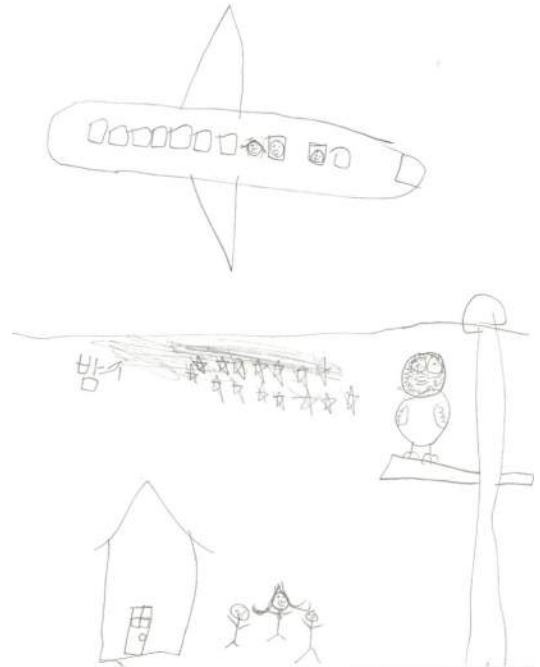


정유나 박 현 김상훈
정인아 이유나 김애나
노한나 장송이 노지영

여름 방학 도유현 2학년

여름 방학에 한국에 가요.

- 유원지에 가요.
- 할머니를 보러가요.
- A와 B에 또 미국에 돌아올 거예요.
- 할아버지도 보러가요.
- 농구 게임도 볼수있어요.
- 아바타를 보러가요.
- 저민이랑도 보러가요.
- 유원지인원에게 가요.
- 더울 거예요.
- 그런데 everland에 갈거예요.
- everland 너무해요.
- 태권도도 할거예요.



박정환

제목 여름방학 2학년 영 박정환

나는 여름방학에 하와이에서 공연을 할 거예요. 나는 하와이에 한 번도 안가봤어요. 나는 하와이에 바다가 많고 멋있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미국 보다 바다가 더 많고 나무가 많아요. 그런데 엄마하고 아빠 하와이가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왜냐면 바다가 많아서 빠져 질 수 있어서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런 조끼를 가지고 온다고 말했어요. 나는 위험 않다고? 필요한 물건들을 살 거예요. 하고 공연할때 큰형들한테 말을 잘 들을 거예요.

여름방학때 수영 갈거예요. 엄마,아빠,
할머니,고모,큰할머니,효준,효승,하고
제가수영장 갈거예요. 거기서 과일
하고 아침밥 갖고 갈거예요. 우리 사
손들도 올수있어요. 오늘이 네번째
수영가는 거예요. 수영장이 그렇게
크지않아요. 제 친구들도 올수있어요.
저는수영이 제일 좋아요. 저
는 커서수영선수가 되고 싶어요.



7/5 2018

6-17-2014

내 형은 한 글자도 잘 아해요. 내 형은 한
글자도 아해요. 내 형은 책을 많이 읽어요. 내 형은
한 달 동안이 가요. 내 형은 술을 많이 마셔요.
내 형은 학교에서 만이 해요. 내 형은 책을
만이지 않아요. 내 형은 애기 돌보기를 아해요. 내
형은 동생들을 아해요. 내 형은 친구를 많이 만어요.
내 형은 단식이 좋아요. 내 형은 수영을 잘 아해요.
내 형은 춤을 많이 추 아해요. 내 형은 무기가 자
주 아해요. 내 형은 집안일을 아해요. 내 형은
나만을 아해요. 내 형은 한글 책을 좋아하
여요. 내 형은 사탕을 아해요. 내 형은 피아
노 아해요. 내 형은 커피 아해요. 내 형은 바이를 키우 아해요.
내 형은 재미있어요.

우리 가 $\frac{3}{7}$

김상하

6/17/14

우리 가 $\frac{3}{7}$ 은 이상 $\frac{1}{2}$ 은 가 $\frac{3}{7}$ 이 아니요. 우리 가 $\frac{3}{7}$ 은 작고,
미우 하고, 이상 하고, 재미있고, 그리고 그냥 좋은 가 $\frac{3}{7}$
이예요.

이제, 제 가 쪽으 소개 하고 싶어요, 먼저, 우리 막내는
지훈 이였는데, 그런데, 아기 한명 더 태어났어요,
아기 이름은 김정훈 이입니다.

정 $\frac{1}{2}$ 혼 이 $\frac{1}{2}$ 소 가 $\frac{1}{2}$ 할 게요, 정 $\frac{1}{2}$ 혼 이 $\frac{1}{2}$ 막 4 이고 아기 여 1요.

귀일고, 유은 $\frac{7}{10}$ 아 하고, 만이 물어요.

다양한, 지분이 2/2 소 개 할 게요.

지훈이도 만이 물어요, 지훈이가 게임기를 만이세요,

어디 보면, 지층이 화산암, 응회암.

그 다음으로, 도훈이를 소개 하세요, 도훈이는 말을 많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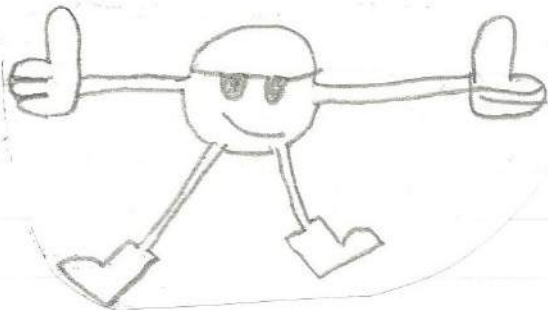
$\frac{5}{6} \div \frac{1}{6}$ 이 $\frac{5}{2}$ 하면, $\frac{1}{2}$ 아요, 그리고 짜증 나요.

다음은 엄마 하고 아빠 소개 해줘요, 엄마 하고 아빠

는 사랑합니다 데, 우리 앞에서는 너무 사랑 해요, 자기 뽀뽀 해요

너무 징그러운거

그리고 저요, 제 이름이 김상훈이에요, ¹/₂가까 감
사합니다. 이거다



나눔

By: 윤예나

저는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 논 쓴거
예요. 저는 J.K. Rowling life가 특별한 것 같아요.
나눔은 좋은 것이예요. 나눔은 특별한 것이예요.
저는 이제 J.K. Rowling에 대해 말한거
예요.

J.K. Rowling은 이혼을 했어요. J.K.
Rowling은 애들이 있었어요. 인도 굶겨냈었
고요. J.K. Rowling은 이제 Harry Potter 책을
썼어요. 가진 돈을 Homeless 사람들을한테 나누어
줬어요.

저도 이제부터 기부를 할거예요. 세배돈
은 \$5는 받았어요. \$1은 현금. 돈 \$1 집업은
사람들(Homeless)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들한테 나누어 줄거예요. 이런것은 해야지 좋은
결과를 만들수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것을 열심히
해야 되고. 포기할하면 안되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열심히 나
누면서 살고, 도와 주고, 막고만 하지 않고 정만고
할거예요.

나눔은 부메랑이 되어 온다
정유나 3학년

저는 한글학교에서 나눔의 대한 동경상등을 보았어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동경상은 "나눔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온다" 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던거는 JK Rawlings (조앤 롤링)
은 28살에 이혼을 당하고, 나가을 땅,하고 가난했었어요.
조앤은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앤은 카피에서
일을 했어요. 조앤 땅을 어리니까 몸 때문에 조앤이 달래주어야
했었어요. 그래도 조앤은 삶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앤은 가난하게 시작했지만 이제는 복자가 되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JK Rawlings를 알아요. 2010년에
에드버러 대학교에 185 만 원으로 기부를 했었어요. 조앤
은 에드버러 대학교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어머니
를 약아간 복치병 영국에 쓰길 바란다." 하고 말했
어요. 2013년 조앤이 가명으로 출간한 탐정
소설, '크리스 콜링'의 판매 수익 기부할 정을 했어요.
조앤이 이렇게 말했어, "내 내가 바다에
있을 때 영국의 복지를 돕고 나쁜 일이
생깁니다. 그에 대한 애국심의 표정으로
영국의 납세자로 납고자 합니다."

저는 worldvision을 합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친구를 도와 줘니다. 한달에 \$35.00을 줘요. 그
러면 친구가 한달 동안 밥도 먹고, 학교도 가고,
옷도 입고, 친구를 도와주는 어쩔때는
친구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도 했어요. 저
친구는 제가 준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려서
보내 줬어요. 저는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조앤은 돈을 받은 편지와 가지 기부와
기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더 큰
조앤처럼 기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나눔

4학년
박수한

저는 느티나무에서 나눔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나눔에 대해 동영상도 봤습니다. 저는
나눔에 대해 아주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나누지만 아직 나누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세상을 돕고 싶습니다.

내가 제일 감동 받은 동영상은 "생명으로
나눌 수 있다."입니다. 그 내용은 기석이 라는
9학년이 갑자기 머리가 아파 쓰러져 죽었습니다.
밤금 기석이는 뇌출혈 때문이었습니다. 기석이는
건강한 아이였고, 운동을 좋아했어요.
기석이 아버지가 기석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기석이의 장기 기부를 했습니다. 이 파트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기석이가 장기를 주어 6명의
환자를 살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세상을
도와 주고 싶어요.

저는 세상에 큰 도움을 못주었지만, 저는 학교에서
심장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게 돈을 주는 행사에 \$50를
주었습니다. 저는 심부름을 열심히해 돈을 모을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어 세상을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중학년
박현

나는 나눔에 대해서 나눔 사람을 말해. 잘
거예요. 오해하면 선생님이 배디온을 보. 누가 제일.
종교 어떻게 해서 나눔을 할건지 글을 쓰라고 그래요.

나는 많은 사람 중에 J.K. Rowling 을 제일
좋아해요. 처음에 J.K. Rowling 이 남편도 없고 아예
도 있었는데 유럽에서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열심히 써서 대단한 히리 포터
를 썼어요. 그래서 영국에 돈을 주고 병원에도
돈을 주었어요.

나는 학교에서 모금을 했어요. 시장이 아픈
사람들을 학교가 도와 주는데요. \$30을 얼마가 주셔서 냈어요.
나는 이제 돈이 없는 사람하고 집이 없는 사람들
한테 도움을 주려고요. 돈을 모아서 차 타고 갈 여비를
사람들한테 주려고요. 나는 J.K. Rowling 처럼 돈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눔

4-학년

윤성준

저는 나눔에 대해 이야기를 할거예요.
어떤 형아가 학교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래서 몸을 장기 기증 했어요.

다음에는 J.K.Rowling이 돈이없어요, 그리고 남표준이랑
이원 했어요, 가난했지만 열심히 책을 써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나누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판 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사고 나서,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신발을 팔 하나로
열심히 만능등에서 그 신발을 장애인들에게 나누었어요.

저는 이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와 나누고 싶어요, 제 생각에
제일 잘 나누는 사람이 할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오른팔이 없어도 힘들게 일해서 신발을 나누어서, 저
도커서 목자가 되어서 돈을 나누는 거예요.

나눔

도형탁

4학년

① 돈이 없어도 도울수있다 사람들은 왜 나누지 않는 이유는

욕심이 있어서다. 사람들은 돈 많이 벌려고 한다. J.K rowley는
가난했지만 계속 도움 받고 나중에 돈을 벌어서 사람들을 도왔다.

② 우리는 조금 있어도 도와줄수있다! 생각해봐요. 우리 선생 버핏은 이렇게
말했대 "물고기 주지 말고 물고기 잡기름 연습시켜라"라고 말했어요.
그런 펠라네는 1/3의 돈을 주는 것이 규칙이었어요. 나는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들었어요. "돈이 있으면 많이 주고 조금 있으면 조금이라도 주라."

③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신발을 사면 신발 없는 사람한테
한개 준다 밥을 먹으면 모 먹어던 사람한테 밥준다.
나는 베이크 세일 이 있었대. 나는 기부했대. 왜냐
내가 아픈 아이를 돕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 알았다.
돈 안 받아도 도울수있다. 사람들 이제 나눔시다.

내 재산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이유 4

6/10/14

이번달에 나눔에 대해서 배웠어요. 동영상도 여러가지 보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저를 감동시켰던 동영상은 "내 재산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이었어요. (#4)

저는 #4를 보면서 돈이있으면 나누어주고, 욕심만 부리면 죽음인걸 알았어요. 또, 사회에 돌려줘 주어야 해요. "나의 부는 사회에 환원될 것 입니다." - Buffet. Buffet는 매시간에 \$1,500를 벌어요.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요. 근데, 기부하면, 자녀에게는요? Buffet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산이 아니라 스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물려줄 겁니다." - 75%을 기부 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사회에 돈을 나누어줄 거예요. 이제부터 욕심만 부리고, 열심히 좋은 직업을 갖고, 돈만 벌려고, 그돈으로 다른 사람은 도와줄 거예요. 돈이 없어도, 시간을 기부 할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욕심만 부리고, 기부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사회에 기부 할 거예요. 최선의 힘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다른 사람도 기부하라고 얘기하고, Buffet 처럼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 동네 밀크릭

3학년 정유나

오늘 제가 살고 있는 도시 밀크릭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게요. 제 생각에는 밀크릭은 살기 좋은 도시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밀크릭은 조용해요. 집에서는 차가 왔다갔다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 납치될 확률이 낮아요. 밀크릭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도 많아요.

저는 지금 밀크릭 초등학교에 다녀요. 저의 선생님은 Mrs. Rawlins 예요. 저는 시험을 봐서 Highly Capable 에 들어갔어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친절해요. 저는 코리안 아메리칸 친구들도 많고 아메리칸 친구들도 많아요. 우리 학교에는 행사가 많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기부를 많이 하면 학부모회(PTA)에서 돈을 모아서 행사를 해요. 필드 데이 (field day)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학교 행사예요. 필드 데이는 여름 방학하는 주간에 열려요. 학부모님들이 자원 봉사를 해서 여러가지 게임을 맡아요. 게임들을 하려면 반에서 친구 두명과 팀을 해야 돼요. 저는 작년에 현이랑 샘이랑 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임은 플라스틱 아이스크림 콘에다가 물을 넣어서 경주하는 게임이에요. 경주할 때 물을 많이 흘리지 않고 물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임은 페이스 페인팅 (얼굴에 그림 그리기)이에요. 하고 싶은 애들이 많으니까 줄도 길고 밤에 지울 때 잘 안 지워져요. 행사가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이 아이스크림을 모든 학생들한테 나눠줬어요.

우리 학교는 견학을 일 년에 세 번 가요. 매년마다 틀려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견학은 밀크릭에 있는 에버렛 박물관에 갔던 거예요. 에버렛 박물관에는 우리들이 실험을 해 보고 박물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사용했던 카메라, 타자기, 보석을 볼 수 있고 어떤 실험은 물고기들을 잡는 거예요. 물고기들을 그물로 잡아야 하는데 물고기들이 너무 빨라서 잘 안 잡혔어요. 그래서 저는 두 마리만 잡았어요. 가장 많이 잡은 친구는 네 마리를 잡았어요. 물고기들을 잡은 다음에는 다시 놓아 줘야 돼요. 집에 가져가지는 못 해요. 운이 좋으면 물고기들에게 새우같은 먹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박물관 밖에는 작은 길이 세 개가 있어요. 저는 우리 반 아이들이랑 첫번째 길로 갔어요. 나무들이 많고 꽃들이 예뻐요. 스킨크 캐비지 (skunk cabbage)라는 식물은 삼겹살을 싸서 먹는 상추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냄새가 진짜 많이 났어요. 토할뻔 했어요.

오늘은 University of Washington 에 견학을 갔어요. 1년에 한 번하는 과학 축제를 봤어요. 우리가 물 위에 걸어가는 실험도 해 봤어요. 언니, 오빠들이 물이랑 하얀 밀가루 같은 것을 밀가루 반죽처럼 만들어서 길쭉한 통에다가 넣어요. 그 위를 우리가 빨리 걸어가야 돼요. 빨리 안 가면 빠져요. 빨리하면 물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장난감 정도로 여러가지 모양도 만들었어요. 나는 별 모양을 만들었고 친구들은 동그라미를 만들고 동그라미 위에 얼굴을 그렸어요. 또 워싱턴 대학교에는 진짜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도서관에는 헤리포터방이라고 언니 오빠들이 공부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말을 하면 혼나요. 그래서 조용히 했어요.

밀크릭 타운 센터에는 가게들이 많아요. 잠바 주스, 스타벅스, 병원 등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게는 잠바 주스 가게예요. 여름에 잠바 주스 가게에서 스무디를 사서 친구들이랑 바닷가에 가면 진짜 좋아요. 바닷가에서 스무디를 먹으면서 물싸움도 하면 진짜 재미있을 거 같아요. 저는 한번도 안 했지만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스타벅스는 엄마가 좋아해요. 엄마는 그린티 라떼를 좋아해요. 저도 한번 먹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가 더 커서 먹으래요. 또 제가 좋아하는 곳은 Colormemine 가게예요. 그곳에서는 사람이 도자기에다가 색칠을 하는 거예요. 진짜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컵 케이크 가게에서 생일 파티때 컵 케이크를 사면 어린애들이 진짜 좋아해요. 그 컵케익 가게는 빵이 특이하고 크림이 더 맛이 있어요. 몸에 더 좋은 거 같아요.

그거 아세요? 우리 동네 밀크릭은 1983년 8월 30일에 만들어졌어요. 밀크릭에는 많은 학교들, 에버렛 교육관, 박물관, 밀크릭 타운 센터가 있어요. 저는 우리 동네 밀크릭이 좋아요. 여러분도 밀크릭을 좋아하면 좋겠어요.



우리 동네 시애틀

3학년 윤예나

저는 시애틀에 살아요. 저는 시애틀이 너무 좋아요. 시애틀은 산과 나무도 많고 바다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는 시애틀은 유명한 것 같아요. 시애틀에는 유명한 마이크로 소프트 회사도 있고 빌게이츠도 살아요. 그리고 우리 아빠가 일하는 비행기 만드는 보잉 회사도 있어요.

시애틀 다운타운에 스페이스 니들 (Space Needle)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스페이스 니들 타워에 올라가면 시애틀 도시가 다 내려다 보여요. 밤에 보면 불빛이 많아 더 멋있어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전망대에서 마운트 레이니어 (Mountain Rainer)도 다 보여요. 마운트 레이니어는 여름에도 눈이 덮혀있는 여기서 제일 높은 산이에요.

또 스페이스 니들 타워 맨 윗층에 식당이 있어요. 식당이 천천히 돌아가기 때문에 시애틀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음식값이 비싸다고 엄마가 구경만 하고 그냥 가자고 해서 밥은 못 먹어봤어요. 흥! 엄마 미워!

저는 시애틀에 있는 퍼시픽 사이언스 센터 (Pacific Science Center)를 좋아해요. 학교에서 견학으로 갔었는데 공룡 전시회도 있고 바다에 많이 있는 산호 (sea coral)도 만질 수 있어요. 아이맥스 (Imax) 영화관도 있고 나비가 진짜 많이 있는 곳도 있어요. 분수대에 물을 쏘는 것이 있는데 우리 반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서로 물을 쏘며 놀았는데 재미있었어요. 여러 가지 신기한 것이 많고 재미있게 노는 것도 있어서 좋아요.

시애틀 몰 (Seattle mall)에도 볼 게 많아요. 건물 위로 올라가서 모노레일을 타면 시애틀 다운타운 시내를 한 바퀴 돌며 구경할 수 있어요. 저도 친구네 가족하고 사촌들 하고 같이 가서 타봤는데 재미있었어요.

또 관광지로 유명한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Pike Place Market)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많이 팔고 예쁜 꽃들도 많이 팔아요. 이 마켓에 사람들이

구경하러 많이 와요. 길에서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고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에 갔을 때 엄마랑 같이 갔던 시장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구경도 하고 음식도 사먹고 신기한 물건도 많이 팔아서 사기도 해요. 여긴 참 재미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한 번밖에 못 가봤는데 또 가고 싶어요.

시애틀에서 또 재미 있는 것은 덕 버스(ride duck tour Seattle)를 타는 거예요. 다운타운에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시애틀 시내를 구경하다가 버스가 그대로 바다로 들어가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바다에 들어가니 버스가 배가 돼요.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바다를 돌면서 시애틀 시내를 보니 높은 빌딩들이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았어요. 너무 재미있어서 이번 여름에 외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오시는데 또 가자고 할 거예요.

시애틀에서 제일 안 좋은 것은 겨울에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매일 매일 비가 오고 일찍 깜깜해져서 밖에서 못 놀아요. 비 대신에 눈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학교도 안 가고 눈사람도 만들고 밖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시애틀에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세 살 때 겨울에 한국에 갔었는데 너무 추워서 밖에 못나갔어요. 그런데 여기는 비는 많이 오지만 많이 춥지는 않아요. 눈이 많이 안 오는 것은 나쁜데 많이 춥지 않으니깐 그건 좋아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시애틀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학교

4 학년 박수한

저는 4 학년입니다. 미국 나이로 9 살이고 한국 나이로는 11 살입니다. 저는 식구가 4 명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6 살인 남동생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형하고 누나도 있습니다. 형하고 누나는 한국에서 유학 와서 우리집에서 하숙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미국 대륙의 북서쪽에 있는 워싱턴주입니다. 워싱턴 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보잉'사가 유명합니다.

우리 학교는 시험을 보고 입학하는 공립학교입니다. 우리 학교는 동네에 있는 다른 학교 보다 더 어렵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그 중에 내가 살고 있는 곳, 워싱턴 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학교 4 학년은 일 년에 견학을 두 번 갑니다. 하나는 워싱턴주 수도 (The State Capital)에 갔었고 다른 하나는 워싱턴주 역사 박물관에 갔어요. 이 두 견학 장소는 워싱턴주에 관련된 것입니다. 견학에서 제일 좋았던 것은 박물관이에요. 저는 박물관을 간 다음에 워싱턴주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 반은 배우는 게 4이 거의 다 워싱턴주예요?” 선생님한테 물어보았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워싱턴주 교육구가 정해진 커리큘럼에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워싱턴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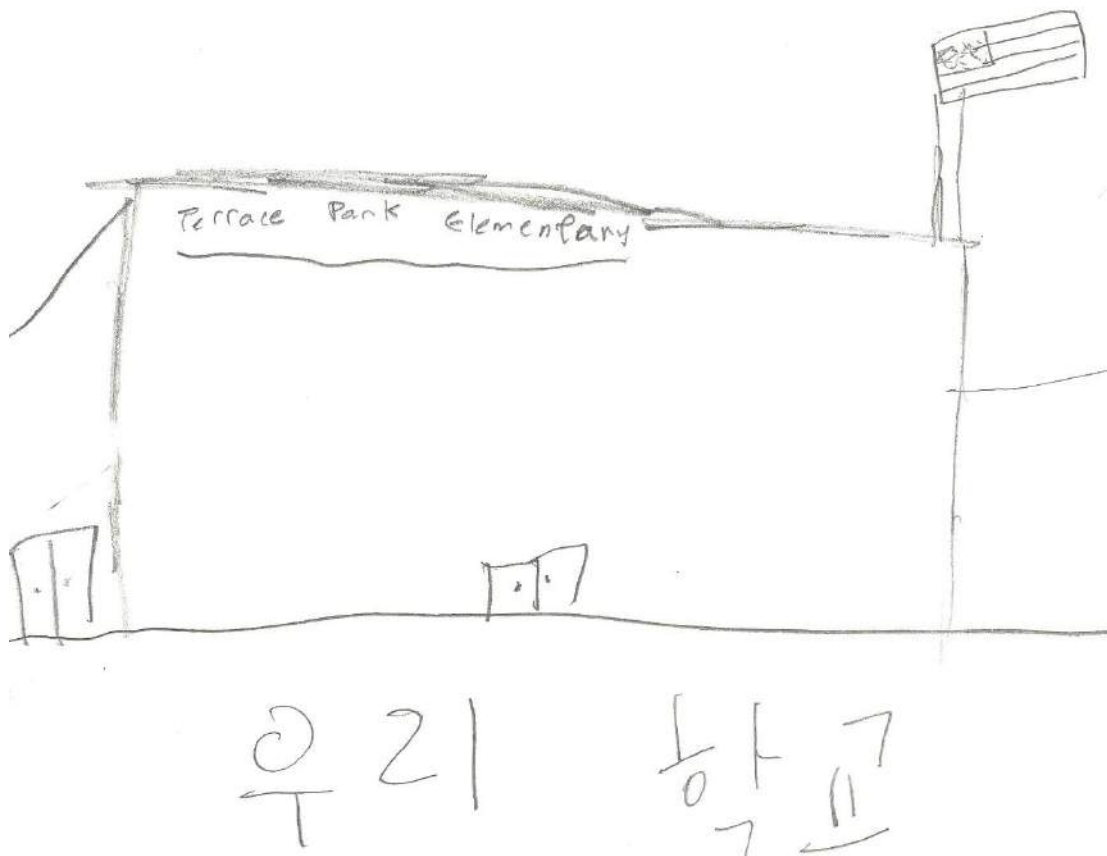
우리 반은 워싱턴주에 대해 배우는 거 말고는 수학, 과학, 글쓰기, 역사 등이 있습니다. 수학 시간에는 분수, 퍼센트, 소수, 그리고 두 자리 곱셈을 배웁니다. 과학 시간에는 전기에 대해 배워요. 우리는 배터리, 전구, 전기 줄, 블록 박스, 종이를 사용해서 집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거의 다 4 (수) 점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회시간에는 워싱턴주 말고는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 반 애들 모두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정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고 발표를 합니다. 제가 배우는 사람은 아이작 뉴턴입니다. 저는 그의 삶이 아주 신기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저는 학교에서 운동도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축구입니다. 매일 쉬는 시간에 학교 축구장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합니다. 저는 축구

선수가 꿈이에요. 박지성이랑 구자철처럼 한국을 빛내는 프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저는 지금 미식 축구를 합니다. 저는 미식 축구도 좋아하지만 축구를 더 좋아해서 부모님께서 방과 후에 축구팀에 들어가서 축구를 배울 수 있게 해 주신데요. 저는 공부보다 운동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 학교는 행사도 합니다. 어떤 날은 문화의 날이고 어떤 날은 과학의 날입니다. 그런데 행사 때 줄은 것은 공부를 별로 안 해도 되는 게 많아요. 문화의 날 행사는 그냥 노는 거예요. 문화의 날에는 사람들이 각 나라의 전통 음식을 가지고 와서 즐기고 무대에서 전통 춤과 놀이를 합니다. 예를 들면, 무대에서 태권도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문화의 날에는 음식이 제일 좋아요. 못 먹었던 다른 나라 음식들을 먹어 보니까요. 저는 문화의 날 말고는 과학의 날도 좋아해요. 과학의 날은 두 달 동안 준비해야 돼요. 학생들이 과학 실험을 한 다음에 뭐를 했는 지 자세하게 종이에 써서 보드에 붙입니다. 나중에 강당에 전시해서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학교 행사들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저는 제 학교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제 학교에 와 보세요.



우리 가족

4 학년 윤사무엘

우리 가족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우리 가족은 네 명입니다. 우리 가족은 아빠, 엄마, 나, 그리고 동생 예나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워싱턴주 바텔 시 (Bothell City)에서 살아요. 우리 가족은 이층집에 살고 저는 우리 가족이 좋아요.

우리 아빠는 직장을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보잉이라는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또 작은 가게도 합니다. 우리 아빠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좋아하는 운동도 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우리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힘들게 일해줘서 고마워요. 또, 저랑 같이 텔레비전도 보고 같이 놀아줘요. 그리고 PS3 게임기도 사줬어요. 먹고 싶은 것도 사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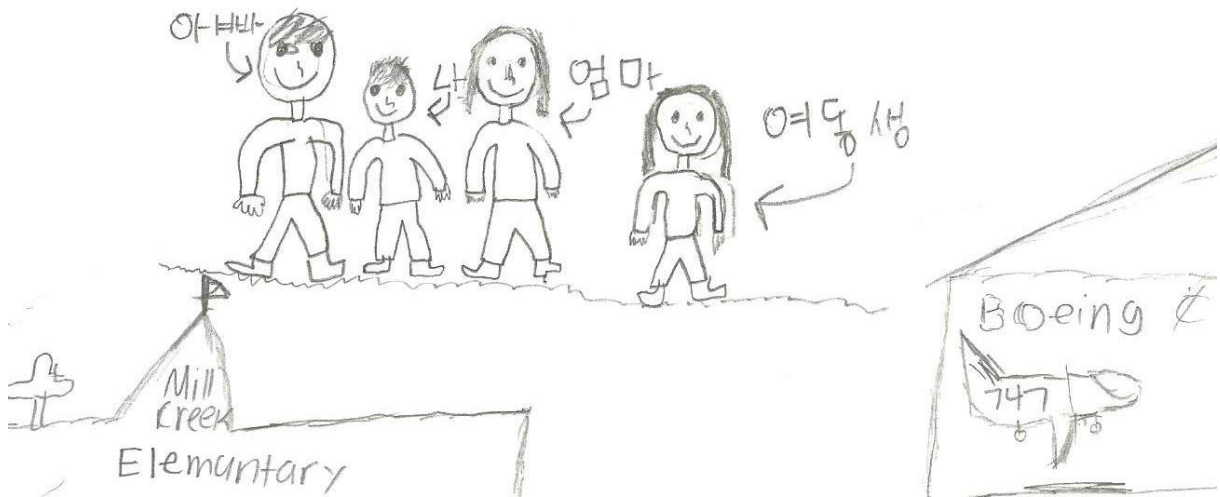
우리 아빠는 미국에 살지만 미국 음식보다 한국 음식을 더 좋아해서 우리 가족은 집에서 항상 한국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음식보다 미국 음식을 더 좋아합니다. 외식할 때도 항상 아빠가 좋아하는 한국 식당에서 먹어요. 그래서 그건 안 좋아요.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은 '수라'라는 한국 음식점입니다. 수라에서 고기를 구워서 상추에 싸먹고 냉면, 샐러드, 계란찜, 오뎅, 된장찌개도 먹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갈비하고 된장찌개에 밥을 비벼서 먹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골프 치는 거예요. 저는 운동도 잘하시고 비행기도 만드는 우리 아빠가 자랑스럽고 제일 좋아요.

우리 엄마는 좋은 엄마입니다. 우리를 잘 돌봐주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음식을 잘 만들어요. 엄마가 만든 음식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은 떡갈비예요. 저는 엄마한테 많이 혼나기도 해요. 말을 잘 안 듣거나 할 일을 제 때 하지 않아서 혼나요. 그리고 공부나 숙제를 안 하면 게임을 못하게 하세요. 저는 여행 갔을 때에 엄마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공부하라는 말이나 피아노 연습하라는 말을 안 하시니까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게 해줘요. 우리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축구나 풋볼 (Football) 같은 운동도 하게 해주고 게임이 있는 날에는 멀리까지 운전해서 데리고 다녀줘서 고마워요.

내 동생 예나는 웃겨요. 웃긴 행동으로 저를 웃게 만들어요. 제 동생은 계란찜을 좋아해요. 학교에서는 영재반이에요. 그리고 셋별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무용을 배우고 피겨 스케이트도 배워요. 예나는 노래도 잘해요. 어떤 때 저는 예나하고 싸우기도 해요. 제가 예나를 귀찮게 만들어서 싸우는데 싸울 땐 저를 아프게 꼬집어요. 예나는 저랑 나이는 두 살 차이지만 학교에서는 저는 4학년이고 예나는 3학년이에요. 어떤 때는 예나가 여동생이 아니고 남동생이면 더 좋겠다고 생각할 때도 많아요. 축구나 풋볼도 같이 하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예나가 귀여운 여동생이고 좋은 동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족은 좋은 가족이에요. 어떤 때는 싫을 때도 있어요. 저도 학교 친구들처럼 하와이도 가고 싶고 뉴욕도 가고 싶은데 아빠가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안된데요. 나는 화가 나는데 동생은 상관 없데요. 내 편을 안 들어줘서 그럴 땐 동생도 싫어요. 우리 가족은 여행을 많이 안 가서 안 좋아요. 그래도 좋은 때가 더 많아요. 저는 우리 가족이랑 여행가는 것이 제일 좋아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많이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가족을 좋아해요.



축구 선수

박현 (4 학년)

나는 축구를 좋아해요. 지금은 에버렛의 러쉬 팀(Rush)에서 축구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선수 선발 테스트 (Tryout)를 했는데 제일 잘하는 A 팀에는 뽑히지 못하고 B 팀에 뽑혔어요. 나는 축구가 너무 재미 있어서 아빠랑 자주 축구 경기를 봐요. 박지성, 기성용, 박주호, 구자철, 손흥민, 김보경하고 홍종호가 하는 축구 경기를 봐요. 서로 다른 나라 팀에 속해 있는데 나는 그 선수들이 무척 자랑스러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손흥민이에요. 손흥민은 지금 레버쿠젠(Leverkuzen)에 있어요. 손흥민의 포지션은 왼쪽 공격수예요. 최종 공격수 키슬링(Kissling)한테 패스를 잘해요. 지금 열 골을 넣었어요. 나는 손흥민 이 자랑스러워요.

나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러쉬 팀에서 축구를 했지만 올해는 아이리시리그 팀에서 축구를 하게 될 거 같아요. 그 팀 이름은 리엘 리베라(Real Rivera)예요. 그 이유는 러시 팀은 셀렉트인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올해도 트라이 아웃을 할거지만 A 팀에 뽑히지 못하면 아이리시 리그 팀에서 할 거예요. 만약 내가 A 팀에 뽑히면 부모님께서 러쉬 팀에 머무르지 않는 상의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나는 축구에서 슈팅이 제일 재미있어요. 공을 찰 때 발등으로 차야 돼요. 공이 발에 잘 맞으면 회전이 없어요. 경기를 할 때 전체 팀이 잘해야 이길 수 있어요. 축구에는 공격, 미드필더, 수비가 있어요. 골키퍼도 있어요. 코치가 연습을 할 때 각 선수에게 잘하는 포지션을 시켜줘요. 나는 러쉬 팀에서 미드필더를 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팀에서는 오른쪽 공격을 해요. 처음 경기에서 내가 두 골이나 넣었어요. 코치 선생님 아들이 네 골을 더 넣어서 우리가 6 대 5 로 승리했어요. 나는 4 월에는 아빠랑 축구를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4 월 말에 일 년에 한번씩 보는 MSP 시험을 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돼요. 나는 3 학년인데 읽기하고 수학 시험을 봐야 해요. 선생님이 고등학교에서 치르는 진짜 시험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거래요.

내 친구 샘은 러쉬(Rush)하고 아이리시 리그(Irish League)의 같은 팀에서 축구를 했어요. 러쉬에서는 샘이 골키퍼하고 공격수였어요. 그런데 아이리시리그 팀에서는 공격수와 수비수예요. 샘은 골키퍼와 슈팅을 잘해요. 그런데 내년에는 풋볼을 한대요. 하지만 저는 계속 축구를 하고 싶어요.

축구를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축구 파티예요. 러시 팀에서 마지막 경기후에 파티를 했어요. 한번은 엘리베이티드 스포츠라는 곳을

갔어요. 재미 있었어요. 거기에는 트램폴린(Trampoline) 이 있어요. 피구 공(Dodge ball)도 있어서 친구들과 피구를 많이 하고 놀았어요. 그리고 알피스 피자 가게에도 갔어요. 피자도 먹고 25 센트로 게임도 할 수 있어요. 나는 게임을 해서 상으로 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공을 가지고 미니 축구도 하고 놀았어요. 트로피 말고 예쁜 미니 축구공을 팀 아이들이 다 받았어요. 그 공에 각 자 이름을 싸인했어요.

나는 커서 축구 선수가 정말 되고 싶어요.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운동하고 훈련 받아서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국가 대표 선수가 되고 싶어요. 나는 미국 국가 대표도 할 수 있는데 한국이 축구를 더 잘하는 거 같아서 한국 국가 대표 선수가 되고 싶어요.



우리 동네, 페더럴웨이

도형탁 (4 학년)

안녕하세요? 나의 이름은 도형탁입니다. 나는 페더럴웨이에서 삽니다.

페더럴웨이는 조용하고 편안합니다. 나는 페더럴웨이에서 작은동네에 삽니다.

우리동네에 있는 꽃나무들은 진짜 예쁩니다. 왜냐하면 꽃잎이 다 합쳐 있습니다.

그래서 예쁜거죠.

내 동생 유현이는 배가 고프면 하마처럼 먹습니다. 유현이는 운동을 좋아하지만 잘못합니다. 우리집에서는 미식축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미식축구공이 옆집에 넘어갔습니다. 누가했을까요? 바로 저죠. 나는 너무 높이 던져서 옆집에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그 공을 옆집에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옆집사람은 한국에 가서 오랫동안 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집 앞에 있는 집은 미운아이가 있습니다. 이름이 저스틴(Justin)입니다. 우리집에 놀러 왔을때 나를 물었습니다. 진짜 아팠습니다. 나는 복수하고 싶었지만 다섯 살이라서 복수를 안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AMC 입니다. AMC 는 영화를 보는 데입니다. 그곳은 항상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를 볼 수 있고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했던 영화는 미스터피바디입니다. 그리고 나는 태권도장도 갑니다. 내가 태권도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겨루기 (sparring)입니다. 왜냐하면 재미있고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태권도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는 품새이죠. 품새는 나한테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해야 되니까요. 우리는 태권도장을 다녀오면 자전거를 탑니다. 나는 저스틴 그리고 유현이랑 시합을 하는 데 내가 매일 이겨서 재미없습니다. 우리동네는 어떤 때에는 심심합니다. 왜냐하면 나랑 같은 나이의 아이가 없어서입니다. 우리 동네에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책을 많이 빌려요. 그런데 책을 잃어버리면 돈을 내야 돼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Percy Jackson Series 랑 The Odd squad 입니다. 나는 도서관에 화요일에 갑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아니면 두 권 빌립니다.

또 우리동네에서 유명한 데가 있지요. 바로 와일드웨이브즈 (Wild Waves)입니다. 와일드 웨이브즈는 워터파크가 제일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름에만 워터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심심합니다. 그리고 워터파크가 있지만 놀이기구도 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기구는 롤러코스터예요. 왜냐하면 빠르고 오래 탈 수있어요.

그런데 밤에 타면 진짜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놀이기구에 달이 비치면
늑대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와일드 웨이브즈의 입장료는 비싸요. 한 사람이 들어 가려면 66 불이에요.
나는 와일드 웨이브즈에 두번 갔습니다. 첫번째 갔을 때는 유현이랑, 친구랑
갔습니다. 두번째로 갔을 때는 엄마, 나, 유현이랑 갔습니다. 엄마가 놀이기구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컴스핀이었습니다. 엄마가 왜 싫어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돌릴때 너무 어지러워서요. 유현이가 놀이기구를 다 좋아하지만 그런데 키가
작아서 다 못타입니다. 우리는 오후내내 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빠랑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집에서 기다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서 나는
우리동네가 좋습니다.





2014. 3. 한국어 말하기 발표회





2014 수업시간



스파이 (Spy)

최준호 / 2

나는 어른이 되면 스파이가 되고 싶어요. 스파이들은 멋있는 첨단 장비 (high tech)를 사용해서 중요한 정보를 빼내기도 하고 테러리스트 (terrorists)들을 잡아 나라를 구하기도 해요. 스파이는 신나고 재미있는 직업 (job)인 것 같아요. 저는 스파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해요. 지난 크리스마스 선물로 스파이 장난감을 많이 받았어요. 껌 껌할 때 사용하는 야간투시경도 있고 멀리 있는 사람, 대화를 들을 수 있는 telescopic spy ear도 있어요. 옆집 친구들이 놀러오면 스파이 장비를 하고 스파이 게임을 하면서 놀아요. 우리들은 나쁜 놈, 두목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해요. 엄마는 의사가 되라고 하시지만 스파이가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스파이가 되려면 의사만큼 공부도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해야 된대요. 그래서 우선, 태권도 검은 띠 (black belt)가 되는 게 나의 첫째 목표예요. 공부하는 걸 많이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 열심히 해서 꼭 스파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스파이가 되면 북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김정인을 무찌르고 싶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포켓몬 월드 챔피언

채정인 / 3

제가 좋아하는 포켓몬 카드 게임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정말 포켓몬 카드 게임을 원하신다면 포켓몬 대회 (league)나 챔피언십에 참가해 보세요. 여러분이 포켓몬 대회에 참가하면 모든 참가자는 상품으로 포켓몬 카드도 받을 수 있구요, 만약 포켓몬 대회에서 우승하면 더 좋은 상품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 챔피언십에 참가하여 월드 챔피언십에 나갈 수 있는 포인트를 쌓으면 됩니다. 챔피언십 포인트는 월드 챔피언십을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챔피언십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 여러분은 트로피와 다음 해 월드 챔피언십에 초대됩니다.

2014년 여름, 월드 챔피언십은 Washington D.C. 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도전해 보실래요?

나는 포키몬 게임을 좋아해요

김도훈 / 4

나는 포키몬 게임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포키몬 게임은 재미있어요. 그래서 나는 포키몬 게임을 많이 해요. 내 친구 Joon도 좋아해요. 내 동생도 좋아해요. 그러나 내 형은 안 좋아해요. 내 형은 총 쏘는 게임을 좋아해요. 포키몬 게임을 하려면 먼저 비디오 게임 가게에 가서 포키몬 DS게임을 사세요. 집에 가서 포키몬 칩(chip)을 DS 안에 넣으세요. 그리고 그냥 하면 돼요. 많이 재미있어요.

바이올린 연주자

정다리아 / 2

안녕하세요?

나는 어른이 되면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바이올린 소리가 좋아서 작년 4(사)월부터 시작했어요. 일 주일에 한 번, 한 시간씩 레슨해요. 나는 매일 바이올린을 20(이십)분씩 연습해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미누엣 No.1 과 O Come Little Children이에요.

멜로디가 부드러워서 좋아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가족

김지훈 / 2

우리 가족은 여섯 명 있어요. 엄마, 아빠, 큰 형, 작은 형, 애기 그리고 나입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좋아해요. 우리 가족은 취미가 있어요. 엄마의 취미는 요리예요. 아빠의 취미는 축구 비디오 게임하는 거예요. 큰 형의 취미는 책을 읽는 거예요.

작은 형의 취미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내 취미도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애기 취미는 우유 마시는 거예요. 나는 큰 형이 잘 때가 좋아요. 왜냐하면 나를 안 괴롭혀요. 나는 우리 가족을 사랑해요.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사람

장송이 / 7

이 세상에는 72억의 사람이 살고 있대요. 많죠? 하지만 그 중에 몇 명이나 편안하고 잘 사는 인생을 살까요? 1,000명? 10,000명? 100,000명? 100명도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85명 밖에 안 돼요. 미국에서는 빈부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어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들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빈부 격차가 역전되지 않았고 그대로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소득 상위 1%가 벌어들인 것은 전체 소득의 93%를 차지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사과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 8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과 4개를 반으로 잘라서 8명이 같이 나눠 먹는게 맞는건데 그 대신 1명이 사과 3개를 다 먹고 나머지 7명이 사과 1개를 나눠 먹는 다는 것이에요. 너무 불공평한 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래요. 부자들만 내는 부자세를 냈으면 좋겠어요. 부자세를 내면 사회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고 물론 병원, 학교 같은데도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 부자세를 내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부자들은 "내가 번 돈인데 왜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줘야 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그래, 이 돈 어차피 너무 많고, 쓸데도 별로 없으니까 사회에 돌려주자!" 하고 부자세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법에서 부자세를 내는 게 꼭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빈부격차가 날로 심할수록 부유한 자들은 더욱 더 잘 살거고 가난한 자들은 더욱 더 힘들어질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친구

김리아 / 3

내 친구 이름은 크리스티엔입니다. 크리스티엔은 좋은 점이 많습니다. 크리스티엔은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안 혼납니다. 크리스티엔은 나와 내 친구들에게 착합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프로젝트를 다 못 끝냈는데 나를 도와줬습니다. 나랑 달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빨리 못 달립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랑 노는 걸 좋아합니다. 크리스티엔은 교실에서 책을 읽는 걸 좋아합니다. 크리스티엔은 머리가 길고 날씬합니다. 그리고 마셜 아일랜드 (Marshall Islands)에서 왔습니다. 약간 하얗고 약간 까맣습니다. 크리스티엔은 엄마, 아빠, 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내 친구 크리스티엔이 많이 좋습니다.

음악 치료사

이유나 / 6

어느 날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브랜든은 전화하자마자 계속 울고 말도 못하고 제대로 숨도 잘 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는 동안 브랜든의 마음이 편안하고 숨을 잘 쉴 수 있게 말해 줬어요. 그래서 브랜든은 괜찮아졌고 얘기를 해 주는 데 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 일 때문에 저는 치료사가 되고 싶어졌어요. 치료사 중에서도 저는 음악 치

료사가 되고 싶어요.

첫번째 이유는 음악을 좋아해서요. 플룻, 피아노하고 기타를 쳐요. 노래 부르는 것도 재미있어 해요. 플룻과 피아노는 아주 편안하고 마음을 진정시켜요. 기타는 행복한 느낌을 줘요. 저는 차를 탈 때마다 라디오를 크게 틀고 음악을 들어요. 친구들에게 조언도 해 줘요. 뭐를 먹을 지, 뭐를 살 지, 뭐를 입을 지 등등. 어떤 친구들은 페이스북(Face book)에서 메시지를 보내요. "뭐를 하면 좋을까?" ,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물어봐요. 둘째 이유는 엄마도 치료사예요. 엄마와 같이 직장에 가고, 엄마와 같이 밥도 먹고 싶어요. 엄마가 고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알려줘요. 참 좋은 엄마예요. 엄마는 큰 가방을 갖고 다녀요. 그 가방속에 뭐가 있을까요? 글썄... 종이, 고객들의 에세이, 스케줄, 바인더, 연필... 그런 거 많이 있겠죠! 엄마가 다 쓰고 나면 저한테 주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을 갖고 놀았어요. 어른처럼 쓰고 어른처럼 얘기하고 어른 흉내를 냈어요. 그렇게 노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저의 미래를 벌써 정했어요. 대학교는 Seattle Pacific University 다닐 거예요.

음악 치료사가 되어서 엄마와 같이 음악 치료 학과 아니면 상담 치료 학과에서 같이 일할래요. 와 ~ 시간이 빨리 가네요. 벌써 다 설명했네요. 제가 멋진 음악 치료사가 되게 응원해 주세요!

선생님

설효빈 / 2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들한테 공부를 가르쳐 주고 싶어요. 영어, 한글, 과학도 다 가르쳐 주고 싶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는 숙제 조금 줄거고 공부 잘 안하는 애들한테는 숙제 많이 줄 거예요. 저는 Dunn 선생님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넘어졌을 때 도와 주고, 예쁘고 원숭이 춤을 추니까 재미있어요. Dunn 선생님은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는 선물을 줘요.

선생님이 되면 동화책 재밌는 거를 많이 읽어 주고 싶어요. 미술도, 노래도 다 가르쳐 주고 싶어요. 선생님이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텔레비전은 이제부터 매일 30분만 봐야 될 거 같아요. 많이 놀지 말아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고 좋은 선생님 될 거예요.

꿈을 찾고 있습니다!

김애나 / 6

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꿈은 저의 꿈을 찾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의 꿈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 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꿈이 바뀌었어요. 저는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바뀌었지요. 저는 화가 다음에 의사, 변호사, 학자, 대통령, 그리

고 아직도 저의 꿈을 찾는 중이지요.

저는 이제 상담사도 되고 싶고, 초등학교 선생님도 되고 싶고 교수도 되고 싶습니다.

저는 저의 꿈이 왜 계속 바뀌는 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크면서 저의 관심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상담사도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주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또 아이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 제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도와주었다라는 느낌을 갖는 것이 행복하고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도와 드리고 나면, 제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 주었다는 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저는 그런 따뜻한 느낌을 갖고 싶고, 아이들의 고민을 받아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도 되고 싶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또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힘들지 않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재미있는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역사 교수도 되고 싶습니다. 왜 역사 교수가 되고 싶냐면 저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행복하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생을 가르치니까 어린 아이들보다 더 쉬울 것 같아요. 역사가 흥미진진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저는 꿈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도 저는 계속 저의 꿈을 찾고 있습니다.

나에게 중학교란 ...

이유나 / 6

저는 6학년인데 중학생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에버렛 교육구는 5학년까지 초등학교이고 6학년부터는 중학교에 다녀요. 초등학교 1학년년부터 같이 학교 다녔던 친구 신디는 바델 교육구라서 아직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에요. 모든 변화에는 좋은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다고 하는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면서 느낀 어려운 점들과 좋은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어요.

첫번째 어려운 점은 중학교에서는 애들이 숙제가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애들은 드라마를 만들어요. 사람들에게 대해서 나쁜 걸 얘기하거나 루머 같은 걸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고 "이 사람이 이 짓을 했다." 아니면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줘요. 또 어떤 애들은 사회성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친구를 못 만들거나 왕따를 당해요. 또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것, 숙제하는 것을 포기하는 애들도 있지요. 또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자기 학대를 해요. 자기 할 일을 안 하거나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해야 하는 일을 주면 안 하고 말썽을 부리는 애들이 있어요.

두번째 어려운 점은 시간마다 교실을 바꿔야 돼요. 게다가 다음 교실로 가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4분이에요. 빨리 걸어야 되고 어떤 아이들은 교실이 너무 멀리 있고 그 다음 수업은 반대쪽이기 때문에 뛰어가야 되는데 뛰어가면 선생님께 야단 맞아요. 복도에서는 뛰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화장실가거나 친

구들이랑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에서는 교실을 바꾸지 않았어요. 중학교는 초등학교랑 시스템이 너무 달라서 학교 적응을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어제 일곱째 수업 시간에 성적표를 받았어요. 제 친구들이 다 중학교 시스템이 너무 힘들다고 C+를 받았어요. 학교 규칙도 너무 달라서 애들이 규칙을 잊어버리고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세번째 어려운 점은 초등학교는 수업이 쉽고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면 수업이 너무 어렵고 외우기 싫고 힘들어요. 제 친구들은 다 우등생반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학교 숙제가 아주 어려운데 바로 다음날 선생님께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1,2,3,4로 점수를 주었는데 중학교에서는 A,B,C,D,E,F를 줘요. 그래서 애들이 더 낮은 점수를 받기 쉬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애들이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해요.

그런데 중학교에도 좋은 점이 있어요.

첫번째 좋은 점은 성적이 좋으면 오렌지표 (treat ticket)를 주거나 축하 파티를 해 줘요. 오렌지 표는 매달 성적이 좋으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점수에 맛있는 과자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어요. 축하 파티는 학교 식당에서 음악 D.J가 와서 음악을 틀어 주고 우리는 춤을 출 수 있어요. 맛있는 소다도 마시고 게임도 해요.

두번째, 초등학교에서는 밴드, 합창, 또는 미술, 음악, 테크(tech)를 선택하는 기회가 없는데 중학교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밴드를 선택해서 재미있게 플루트를 배우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교회 오케스트라에 들어갔는데 새로운 음표랑 박자를 배웠어요. 학교에서 다른 애들이 지금 배우는 것을 저

는 교회에서 벌써 배워서 쉬워요. 그리고 피아노 선생님이 플룻을 전공해서 플룻 개인 레슨도 받아요. 제가 나중에 대학교 갈 때 플룻 장학금을 받고 싶어요.

세번째,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야구, 배구, 축구, 농구, 육상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6학년 때는 각 운동팀에 참가할 수 있는데 7학년부터는 다른 학교랑 시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한다는 것이 좋아요. 고등학교는 더 힘들까요? 더 좋을까요?

"우리는 왜 공부를 해야 합니까?"

노지영 / 7

저는 공부를 하기 싫어요.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싫어요. 그래서 저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왜 공부를 해야 합니까?" 제 엄마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학가기 위해서." 저도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직장과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대학을 가야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른이 되면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들이 딱 10%만 필요할 것이고 딱 20%만 기억을 할 것입니다.

저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작가가 되면 제가 지금 과학에서 배우는 것, '동물들의 진화 (Evolution of Animals)' 가 필요하질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는 그냥 인터넷 구글(Google)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 엄마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에 가면 필요한 것들을 많이 배울거야." 그럼 그냥 대학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

지 않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 고등학교를 다녀야 하고, 중학교, 초등학교를 다 다녀야 합니다. 저는 열 세살입니다. 그런데 저와 제 친구들은 공부 때문에 다 벌써 눈 밑에 다크 서클이 있습니다.

저는 제 친구 송이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송이는 "공부를 해야지만 우리의 미래가 밝아." 라고 했습니다. 참, 모범생 대답이죠?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하면 대학 갈 수 있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결혼을 잘 할 수 있고, 가족이 생기고, 아이들이 생기고 ... 그 다음엔 다시 그 아이들 공부하는 것을 도와줘야 합니다. 완전 이상한 주기(cycle)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쓸모 없는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제 미래를 진짜 밝게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작가가 되고 싶은 기간 좋은 작가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제와 정치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되면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예를 들면 수입(income)과 지출(expend)은 꼭 필요할 거고, 선거(election)과 청원(petition)도 필요할 거예요.

제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뭐예요? 우리는 도대체 왜 공부를 해야 합니까?

계란에서 수탉까지

노지영 / 7

한국에 가면 아무 한 한국인한테 이 질문을 하세요.

"백범 김구 선생님을 아세요?"

99.9% 한국인들은 안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은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분입니다. 모든 위인들처럼 김구 선생님은 의지가 강했고 마음도 착했고 그리고 똑똑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김구 선생님을 어떻게 고문을 했었는지 설명하기도 너무 끔찍합니다. 저는 아픈 것을 못 참아요. 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갈 때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어떻게 견디셨는지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일본이 핵 폭탄을 맞아서 좋아할 때 김구 선생님은 울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김구 선생님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슬퍼서 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김구 선생님은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다스리지는 않겠지만 이젠 미국과 소련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김구 선생님은 우리 나라를 합치고 독립된 나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욕심을 내서 결국 오늘날까지도 독립된 나라지만 남과 북이 하나로 못 합쳤습니다.

저는 김구 선생님을 다른 많은 한국인들처럼 존경을 합니다. 미국인들이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을 존경하는 것처럼요. 미국은 마틴 루터 킹을 위해 "마틴루터 킹의 날"을 만들어서 국경일로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

날을 어릴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에 학교를 안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도 김구 선생님을 위해 국경일을 만들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중국 사람들을 많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역사 드라마를 제 아빠하고 언니랑 자주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고구려/신라/백제는 맨날 중국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 땅을 많이 뺏아서서 싫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자 일본을 더 원망을 했습니다.

히틀러 (Hitler) 아시죠? 저는 히틀러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를 원망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히틀러가 싫고 히틀러가 한 짓이 끔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을 원망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유대인들도 저와 한국인들이 일본을 싫어하는 것처럼 히틀러와 독일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갈 때 인종 (racial) 농담을 많이 듣습니다. 옛날에는 흑인들에 대한 농담들이 많았죠. 지금도 많지만 아시안 농담들도 많아졌습니다. 뭐, 우리가 "노란색" 이고 우리 눈이 완전 작고 "Chinky" 하다고, 뭐, 이것 저것 많습니 다. 저는 그래도 상관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저한테 "눈 떠 봐!" 라고 말할 때 저는 "니 못생긴 얼굴을 안 보게 감았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말한 사람이 당황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안 농담들 중에 하나는 진짜 싫습니다. 그 농담은 아시안 사람들이 다 닮았다고 말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인이고 중국인이나 일본인들은 한국인들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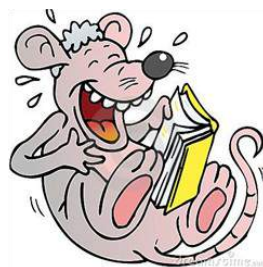
저는 한국 드라마를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작가가 되는 것. 그래서 작가가 되면 본 드라마 중에 일본이 한국에 쳐 들어왔던 시 꼭 김구 선생님과 한국과 일본에 대한 책을 쓰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두 개 있습니다. 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책으로 김구 선생님이 최근에 보고 있는 '감격 시대'와 '각시탈'이 세상에 많이 알려졌으면 합니다.

니다. 각시탈에서 어떤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국 아저씨가 일본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옛날에 봐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한 감동적인 말이 기억납니다. 일본 사람이 그 아저씨한테 독립 운동을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사람이 그 아저씨가 한 일들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처럼 쓸모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국 아저씨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간 그 계란은 병아리가 되고 그 바위는 모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병아리는 그 모래 위에 설 것이다." 그리고 그 일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화난 것 까지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생각날 때 아직도 감동을 받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한국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클렌데이 공원의 평화의 소녀상 (The Peace Monument in Glendale Central Library), 독도, 김치(기무치) 등등... 저는 김구 선생님이 세상에 많이 알려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를 알고 나서 감동을 받아서 김구 선생님이 못 끝낸 일을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한국을 한 나라로 합치는 거예요. 계란이 병아리로 벌써 되었고 바위를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 병아리는 이제 수탉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김구 선생님이 못 끝낸 일을 끝내고 싶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다른 목표를 주셨다고



나의 'Night of the Notables'

프로젝트

장송이 / 7

"자, 이번 학기에는 'Night of the Notables' (훌륭한 위인들의 밤) 프로젝트를 할 것이다."

영어 선생님이 신나신 얼굴로 우리에게 얘기를 했다. 하지만 우리 반 애들은 그냥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 'Night of the Notables' " 프로젝트는 니네들이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이다."

우리 반에 있는 애들은 다 수군수군거렸고 다 싫어하는 표정으로 앉아있었다. 하지만 나는 좀 달랐다. 나는 오히려 이 프로젝트가 하고 싶었다. 설렜고, 이 프로젝트가 재미있을거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도서관에 가서 먼저 연습을 했다. Dr. Martin Luther King JR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 대해 조사를 했다. 나는 친구들과 앉아서 같이 조사를 계속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들 중 한 명이

"야, 마틴 루터 킹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마틴 루터 킹이 흑인을 위해 싸우질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말했다. 나는 그 짧은 순간에 김구 선생님이 떠올랐다. 그리고 생각들이 머리에 가득찼다.

"김구 선생님이 우리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김구 선생님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있는 한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일본이 진짜로 우리 나라를 일본의 땅으로 만들었을까?"

이런 저런 생각들이 계속 떠올랐다. 나는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왔다. 그리고는 엄마한테 물어봤다.

"엄마, 엄마는 김구 선생님이 없었으면 어땠을 거 같아?"

"음... 엄마의 생각은 이래. 엄마는 김구 선생님을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해야 할 분이야. 그런데 김구 선생님이 대단한 이유는 마음으로부터 표현을 한 게 아니고 행동으로도 했다는 거야. 그리고 김구 선생님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 끝까지 갔잖아. 그리고 만약에 김구 선생님이 없었더라면 우리 나라가 이렇게 발전되지 않았을 거고, 우리가 조국에 대한 따뜻한 사랑,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이렇게 큰 영향을 받지 못했을거야. 나는 엄마의 말을 듣고 나서 곰곰히 생각을 해봤다. 진짜 김구 선생님이 행동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 싸우지 않았더라면, 한국은 일본의 땅이 되었을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화가 났다. 이런 나쁜 일본 사람들... 어디 와서 남의 땅을 훔쳐려고 해! 나쁜 사람들... 그런데 나는 조선 시대에 살아본 적도 없고 그런 고통, 아픔 그리고 슬픔도 겪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김구 선생님이 지내왔던 수 많은 감옥 생활, 고문 그리고 아픔. 나는 이런 일들을 겪지도 않았고 그 현장에도 없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일본 사람들에게 화가 나서 앉아 있다. 나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 한심했다.

나는 "일본" 이라는 말을 들어도 질색을 하는데. 김구 선생님은 어떻게 그걸 다 참으셨을

까? 나는 그게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도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깊이 와 닿았으면 좋겠다.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김구 선생님 이제 우리반 아이들, 선생님, 그리고 발표를 은 해 내셨다. 차근차근. 기다리면서. 그렇게 한 들어주신 부모님들까지 모두 김구 선생님이 누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서 꿈을 펼쳤다. 꿈은 다 구인지 안다. 훌륭한 김구 선생님을 알려 주어 이루지 못하였으나 그 피흘린 노력은 정말 존 서 기분이 너무 좋다.

경스럽다.

그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는 달라졌다. 이제부터 나도 행동으로 표현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Night of the Notables' 프로젝트에는 김구 선생님을 하기로 했다. 나는 김구 선생님의 꿈을 내가 이어가고 싶다. 작은 일이라해도 나는 할 것이다. 우리 반 애들한테 백범 김구 선생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거다. 김구 선생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통일, 우리 나라의 독립 그리고 평화. 나도 해낼 것이다. 차근차근. 기다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서 그 꿈을 이어나갈 것이다.

지난 주에 Night of the Notables 프로젝트 발표가 끝났다. 내가 학교에서 Night of the Notables를 위해 자료를 찾으면서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것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 김구 선생님의 느낌, 감정, 글들이 더 마음에 와 닿았다. 나도 모르게 김구 선생님이 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내가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았고 더 깊이 알았던 것처럼 나한테 더 감동이 되었다. 나하고 보통 사람들은 김구 선생님처럼 못했을 거다. 하지만 김구 선생님은 죽을지도 모르면서 꿈을 향해 달려나갔다. 김구 선생님은 한국을 위해 그리고 모두를 위해 모든 것을 했다. 내 마음에 감동됐던 것처럼 다른



우린 언젠가 꼭 통일이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한나 / 9

1945년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에서 나오고
1949년 김구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일 년이 지난 후 1950년에 6.25 전쟁이 벌어
지고 말았어요. 우린 삼 년 동안 피를 묻히면서
살아왔지요. 우리의 형제들의 피... 전쟁이 끝난
후 가족들은 38선으로 갈라졌어요. 그것이 우
리의 가장 슬픈 역사로 남겨졌답니다.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나라
를 생각하면 두려워요. 김구 선생님께서 지금
살아계셨다면 우리 나라는 지금 어떻게 달라졌
을까 하고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남과
북으로 헤어진 이산 가족들이 그리워서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었을거예요. 우린 왜 지금 우
리 나라가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됐는지, 왜 비극
이 있어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아도 될 텐데요.

남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군대
를 안 가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이
원했던 아름다운 민족이 되었을 거예요. 이 아
름다운 민족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 나라를 지
키는 거였어요. 우리 나라가 한 나라가 되어서,
언젠가 꼭 만날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가지지
않아도 됐을거예요.

통일은 김구 선생님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암
살을 당하셔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김
구 선생님이 지금 살아계셨다면 북한과 남한은
통일이 되어서 아름다운 한 나라가 됐을 건
데... 하지만 우리 나라의 현재 모습은 38선으
로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은 2014년이에요. 많은 세월이 흘러갔죠.
지금 남쪽,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패션, 음식,
과학 기술 (technology), 케이팝(K-pop), 이런 것
들로 유명해지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대한민
국은 잘 사는 나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위에는 우리의 적, 바로 북한이
있어요. 한 시절에는 우리는 같은 민족이었고
똑같은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
나 지금은 많은 게 변했지요.

북한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아이들은
배가 고파서 제 집 앞마당에 있는 잡초, 토끼풀
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먹기가 충분하
지 않대요. 제가 이런 걸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전 제 집 앞마당에 있는 토끼 풀 갖고 제 동생
이랑 소꿉놀이를 하고 놀았는데 제가 지금 살
고 있는데서 이 지구 제일 반대편에서 살고 있
는 아이들은 소꿉놀이가 아니라 배가 고파서
그걸 땅에서 뜯어 먹는다니 전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어요. 제가 여기서 이 좋은 미국에서
살고 있고 맛있는 음식과, 예쁜 옷, 그리고 자
유를 갖고 산다는 게 미안하고 감사해요.

저도 북한에 있는 아이들과 똑같은 한국사람이
예요. 참 믿기가 힘드네요. 똑같은 한국사람이
지만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살 수 있는지 믿기
가 힘들어요. 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북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북쪽에서 사셨다면 전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겠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하기가 너무 싫어요.

전 남과 북이 통일될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믿어요. 독일도 처음에는 서쪽이랑 동쪽으로
갈라졌는데 지금은 하나로 통일된 나라가 됐어
요. 제가 "김구,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다"라는

책을 읽고 김구 선생님께서 이루지 못한 소원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면 저는 서슴지 않고 "제 소원은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 이라고 할 거예요.

전 하루 빨리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서 북한에 있는 제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 같은 학교에서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언어를 쓰면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면서 치료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똑같은 민족인데 한번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 미국 친구들은 북한 정부가 아주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북한 정부는 자기들만 생각만 하고 돌보아야 할 국민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도 관심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북한 사람들은 자유와 인권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을 도망쳐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데 도망가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전 언젠가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어서, 살기 좋고, 가장 아름다운 나라라고 얘기할 그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나라는 소중한대. 갈라져 있는 우리 나라를 하나로 통일하고 싶다." 라는 마음을 주신 김구 선생님께서 저 하늘 위에서 저를 내려다 보시며, 정다운 미소를 지으실 거라는 생각을 하니 전 벌써 하루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반드시 통일되게 할 겁니다.

우리 가족

정인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인아입니다. 우리 가족은 세 명입니다. 아빠, 엄마, 나. 아빠 취미는 사진 찍는 거예요. 엄마 취미는 잡지 읽기예요. 제 취미는 책 읽는 거예요. 우리 고모의 가족도 셋이에요. 고모, 고모부, 다이아. 고모 취미는 악세사리 만드는 거예요. 고모부는 증권 거래하는 것을 좋아해요. 다이아는 뜨개질을 좋아해요. 다이아는 내 사촌 동생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같이 한국 음식점에 가서 저녁 먹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우리 할머니가 좋아요. 우리 할머니는 된장찌개를 좋아하세요.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꽃은 데이지라는 꽃이에요. 제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오락은 컴퓨터에서 고스톱이라는 게임이에요. 시간가는 줄 모르고 하세요. 할머니께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친구분들하고 밀크릭 공원으로 산책하러 가세요. 할머니께서는 교회에 열심히 나가세요.

저는 아빠, 엄마, 고모, 고모부, 다이아, 할머니. 우리 가족 모두를 사랑해요.

나의 쌍둥이 롤러코스터

장송이 / 7

"야! 장다솜! 조용히 안 해?" "야! 장다슬! 너 이리 와!" "야! 야! 야!!!" 나는 이렇게 하루하루가 조용할 날이 없어요. 나를 이렇게 목청 터지도록 소리를 내게 만드는 사람은 바로 나의 네 살짜리 말쑥꾸러기 쌍둥이 여동생들 때문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혼자였어요. 내가 초등학교 1학년때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질문 중 하나가 "가족이 몇 명이 있나요?" 라고 써 있었어요. 나는 엄마, 아빠, 그리고 나. 세명이라고 적었어요. 하지만 내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다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그리고 일곱 명이 적혀 있었어요. 내 친구들은 대부분 동생이나 언니 오빠들이 있었어요. 나만 혼자였어요. '아…… 나도 동생이 있었으면……'

하루는 학교가 끝나고 엄마가 데리러 왔을 때 엄마가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송이야, 이게 뭔지 아니?" 사진이 검고, 하얗고, 흐릿한게 뭔지 몰랐어요. 그 때 엄마가

"송이야, 엄마 뱃속에 아가가 생겼어!" 나의 입은 찹~ 내 눈이 번쩍~ 오 마이 갓. 드디어, 나에게 동생이 생기다니! 난 너무 기쁘고 설레었어요. "나도 동생 하나 만들어줘!" 더 이상 엄마를 귀찮게 안 해도 됐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더욱 더 커질 수 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초음파 검사를 하러 갔는데 갑자기 간호사 언니가 말했대요.

"Oh my God! I see two heads! Congratulations! You have twins!" "Twins? 2명이라고? 2명??" 나의 웃음은 더욱더 커지고 우리 아빠의 입도 더 커져버렸어요. 우

리 엄마가 나를 가졌을 때 내 태몽은 온통 딸기, 복숭아, 다 여자의 태몽들이었어요. 하지만 쌍둥이의 태몽은 좀 달랐어요. 꿈을 꿀 때 마다 두쌍씩 나왔어요. 그런데 꿈들이 죄다 소, 뱀, 호랑이…… 그래서 우리는 아, 남자 아이들이구나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깐 여자 아이들이지 뭐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그런 꿈을 이유없이 꾸는 꿈은 아니더라구요. 왜냐하면 쌍둥이들의 성격이 완전 상남자 성격이거든요. 킁킁. 애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막 장난치고, 만지고, 부러트리고, 날라다니고. 어휴!

한 번은 다슬이(막내)가 소파에서 뛰어다니다가 점프를 해서 책상 나사가 부러졌는데 다행히 다슬이는 엉덩이로 부딪혀서 안 다쳤어요. 또 한번은 다솜이(둘째)가 다슬이 머리카락을 잘라준다고 하다가 귀 끝을 잘랐고요. 그 때 심했으면 응급실에 가서 꿰매야 했을 거예요. 귀끝이라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아! 또 한 번은 다슬이가 부엌 바닥을 고춧가루로…… 한국에서 우리 고모할머니께서 직접 보내주신 고춧가루를 다 쏟아서 부엌 바닥이 온통 빨간색으로 변했답니다.

그 뿐 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일요일에 7시 30분에서 45분 사이에 일어나서 교회를 갈 준비를 해요. 엄마는 아침밥을 준비해야 되니깐 바쁘고요. 다솜이 다슬이는 제가 책임을 지죠. 먼저 옷, 다솜이 다슬이가 입고 싶은 것을 골라요. 그럼 제가 쌍둥이들이 옷 입은 것을 훑어 봐요. 어떤 때는 아랫층으로 뛰어가서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오늘 추워 아니면 더워?" 춥다고 말하면 긴 팔과 바지를 골라요. 좀 날씨가 더우면 치마나 드레스를 입어요. 다솜이(둘째)는 제 말을 너무

잘 들어요. 똑똑하고 눈치가 빠르니깐. 다솜이는 그래서 많이 안 혼나고, 저나, 어머니, 아버지는 그래서 다솜이한테 소리를 별로 안 질러요. 하지만 막내 다슬이는 아주 많이 달라요. 자기 방식대로 해야 돼요. 제가 "다슬아, 오늘 추우니깐 바지 입자." 라고 하면

"싫어! 나 치마 입을 거야!" 이런 대화를 한 3분 동안 하면 제가 주걱을 가지고 엉덩이를 몇 대를 때려요. 그럼 언성이 높아지죠.

"장다슬! 언니가 뭐랬어! 치마 입지 말라고 그랬지! 어! 춥다고! 왜, 언니 말을 안 들어! 다슬이는 그 때 울음이 터지고 어머니한테 쓸살같이 달려가요. "엄마 송이언니가 나 엉덩이 때렸어!" "거 봐! 거 봐! 또 지가 잘못된 건 안 말하고 언니가 잘못된 건만 말하지! 어휴! 저걸 진짜!"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머리를 할 시간이 되면 그 때 혈압이 확 올라가요. 그럼 그냥 머리를 묶지 말고 풀르라고요? 노우~ 안 돼요. 그건 절대로 안돼요. 제 동생들은…… 아니 제 가족은 머리술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머리끈도 한 번 쓰면 부러지고, 늘어나고, 또 머리핀은 안 들어가고, 또 부러지고, 머리띠도 해봤지만 붕 뜨거나 아니면 철사가 빠지고 그래요. 제 동생들의 머리술은 다른 아이들에 비하면 한 다섯 배 더 많을 거예요. 다솜이는 "언니 나, 머리, 여긴 쪽 따서, 뒤로 해서, 높게 묶어줘." 다솜이는 한꺼번에 말해서 너무 편해요. 다슬이는 이 머리 해봤다, 저 머리 해봤다, 묶었다, 풀었다. 다시 묶었다. 다시 풀었다. 또 다시 묶었다. 이러니 제가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야! 장다슬! 너 이게 마지막이야! 알았어!" 그 마지막이 꼭 처음에 한 헤어스타일이에요. 아, 참나…… 하여튼 머리하는 일은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이제는 자기들이 다 컸다고 언니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요. 조그만 것들이 말예요. 그래도 저는 쌍둥이 기분에 맞춰줘요. 제가 또 짜증나는 것 보다는 낫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런 고생을 해도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쌍둥이를 가진 순간부터 후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솜이와 다슬이가 있으니깐 제 인생은 매일 매일 롤러코스터예요. 너무 재미있어요. 쌍둥이들이 하는 말과, 하나, 하나의 행동이 너무 재미있고 웃겨요. 저도 어떤 때는 어머니 아빠한테 이런 말을 해요. "엄마 쌍둥이가 아니고 하나만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그럼 어머니가 "송이는, 둘이 아니고 하나였으면 어땠을 것 같아?" "좀 더 쉬웠겠지. 덜 힘들었겠지. 덜 시끄럽겠지. 하지만 나는 쌍둥이라서 더 좋아. 나는 남들이 겪지 못한 그런 특별한 인생을 살고 있잖아."

나는 쌍둥이들의 본보기예요. 내가 잘 해야지 내 동생들도 잘 할 수 있으니까요. 내 꿈은 이래요. 나는 뉴욕에서 살고, 다솜이는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다슬이는 하와이에서 살고, 어머니 아버지는 워싱턴에서 살고. 그래서 매년 크리스마스는 다솜이한테 가고, 추석때면 다슬이한테 가고, 또 설날에는 워싱턴에 있는 어머니 아빠한테 가고. 이렇게 다른 주에서 살아도 다 같이 모여서 시간을 나누는 것이에요. 나는 내 동생들과 깊고 사이좋은 인연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내 동생들한테 좋은 언니라고 평생 기억되고 싶어요.

다시 찾은 나의 소중한 꿈

노한나 / 9

안녕하세요. 저는 꿈을 갖고 살고 있는 15살 노한나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사람들이 제가 미술에 재주가 많이 있다는 말을 자주 해줬어요. 그래서 엄마는 저를 미술 학원에 보냈지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게 이상하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습니다. 저는 그림으로 제 생각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 편한 마음을 갖게 되지요. 어렸을 때 사람들로부터 그림을 잘 그린다는 칭찬을 많이 받아서 저는 미술에 대해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러나 그 자신감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고 나서 제 한국 친구들도 다 그림을 잘 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저는 그때 모두 다 그림을 잘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랬어요. 한국 아이들은 솜씨가 좋아서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솜씨 보다 더 연습을 해서 잘 해야 하는 구나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 동안 미술을 하지 않았어요. 미술 대학가기도 쉽지 않고 돈도 엄청나게 들고 그리고 제가 언제 뛰어나게 그림을 잘 그릴수 있는 날이 올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몇 년 동안 그림을 하고 싶다는 꿈을 접었어요.

9학년이 되자 드디어 무슨 대학을 갈 지 생각을 해야 하는 날이 왔어요. 제가 목표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 어떻게 공부를 할지 목표를 세워야 하기 때문이죠. 저는 그때 꿈이 없었어요. 앞이 깜깜했어요. 지금 하루 빨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 대학을 가기 위해 알맞은 공

부를 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때 미술을 다시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그 길을 선택하기에는 너무 불안했어요. 내가 남들보다 잘하고 나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하는데 어떻게하지라는 고민이 생겼어요. 시간이나서 학교 선배 언니랑 얘기하다 보니깐 선배는 미술로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고 대학에 가기 쉽지 않대요. 그리고 대학에 가도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돈이 너무나 많이 든대요. 선배 언니가 다른 걸 찾고 미술은 포기하라고 했어요. 전 또 고민에 빠졌어요. 소아과를 할까? 변호사가 될까? 저는 도대체 뭘 해야지 좋은 선택인지 너무나 당황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이런 말씀을 해줬어요. "한나야,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넌 미술에 재주가 있다. 너가 연습을 죽도록 하면 너는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대단하게 미술을 잘 할거라고 믿는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나서 저를 끌어 당기는 고민들이 한 번에 사라졌어요. 저는 미술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미술에 대한 자신감도 되찾았어요.

엄마랑 미술에 필요한 도구를 사러 갔어요. 제가 쓰던 붓은 어렸을 때 샀던 것이라 이제는 못쓰는 붓이라서 붓을 사려고 붓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눈에 붓 가격이 들어왔어요. 붓 하나에 한 10불 정도 들었어요. 별로 비싸지 않게 생각하실텐데 붓 하나로만 그림을 그리나요? 아니요. 그림을 그릴 때 붓 열 개나 필요해요. 저는 제 엄마한테 너무나 큰 부담감을 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 집은 부자는 아니지만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부담감이 있으면 나중에

는 얼마나 더 큰 부담감이 있겠는지 두려웠어요. 저 때문에 부모님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주기 싫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전 결심했어요. 전 그림을 잘해서 부모님 도움 없이 장학금으로 좋은 대학을 가야되겠다는 열정이 생겼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힘들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증명하고 싶어요. 저처럼 고민 때문에 꿈을 접은 사람들에게 꼭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부딪쳐보지 않고 포기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 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힘들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불가능이 가능할 수 있어요. 전 아직 성공을 하지 않았지만,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았어요. 전 그 길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다시 한번 더 제 자신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저는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으로 가기 정했어요. 저는 지금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학교 점심 시간에 점심을 안 먹고 집에서 간단하게 챙겨주는 간식을 먹으면서 미술 선생님이랑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번 여름에는 또 시애틀 다운타운에 있는 미술 대학교에서 여름방학 수업을 듣기로 했어요. 수업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장학금을 받으려고 제 작품들을 보냈고 장학금을 보조 받아서 수업을 들을 예정이에요. 저는 이제 앞으로 제 꿈을 위해서 모든 걸 할 겁니다. 다시 또 제 꿈을 접을 수는 없으니깐요. 이제 막 다시 미술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으니깐요. 전 아직 뭘 할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뭘 하든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이제 직진만 할 겁니다. 이제 뒤는 돌아보지 않고 제 미래를 위해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두고 보세요. 저는 언젠가 여러분들 앞에서 당당하게 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노한나로 설 겁니다! 저는 그 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진돗개

노지영 / 6

저는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저도 미국에서 사는 많은 코리안 아메리칸 중에 한 명입니다. 그게 행복인지 불행인지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래도 저의 코리안 아메리칸 생활이 즐겁고 좋습니다.

먼저, 저도 한글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나쁜 점이 뭔지 아세요? 제 엄마가 저의 선생님이고 교장 선생님이예요. 그리고 더 나쁜 점이 뭔지 아세요? 저의 언니도 저랑 똑같은 반입니다. 제 한글학교에는 어린 애들이 많고 6학년부터 고등 학생은 딱 다섯 명입니다. 6학년 두 명, 8학년 두명 그리고 10학년 한 명입니다. 저 빼고 다른 6학년 애는 나의 친구, 송이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유치원 다니거나 그 전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송이를 만났을 때 성격이 나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격이 천사 성격이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교회도 이제 같이 다닙니다.

우리 엄마는 완전 무섭습니다. 띠가 원숭이인데 제가 그 진실을 몰랐으면 호랑이띠인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도 맨날 무서운 게 아니예요. 어떤 때는 돼지처럼 밥 먹고, 꿀벌처럼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원숭이처럼 장난 꾸러기예요. 제가 세살 때 아니면 네 살때 제 엄마가 저랑 제 언니에게 한글을 가르켜 주셨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제 엄마가 한글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 엄마는 나무들을 좋아하니 한글학교 이름을 '느티나무' 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맨날 '느티나무' 라고 썼습니다. 지금은 그 버릇을 고쳤지만 어떤 때에는 글을 빨리 쓰면 '느티나무' 라고 쓸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애틀에 맨날 비가 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더운 날들도 많습니다. 우리 집은 작은 동네에 있습니다. 평화롭고 좋습니다. 꽃이나 나무들도 적당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한국 역사를 배우는데 날씨가 좋으면 교실 밖에서 배우기도 합니다. 한국 역사는 저한테는 좀 쉽지요. 왜냐하면 한국 드라마 중에 역사 드라마를 자주 보니까요.

저의 미국 학교는 저의 한글학교랑 많이 달라요.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들도 매년 바뀝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다른 한국 애들처럼 "너는 꼭 하버드로 가야 해." 말을 맨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버드' 에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기로 정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쉬었습니다. 저의 언니가 많이 도와줘서 저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빨랐습니다. 3학년 때 "Challenge Test" 시험을 보고 "Gifted Program" 으로 들어가서 다른 학교로 옮겼습니다. 그 때부터 공부가 힘들어졌어요. 제 미국 학교는 크고 좋습니다. 깨끗하고 2층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학교들이 많이 좋고 싫습니다. 싫은 이유는 교육에만 신경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혜택이 있는 것과 혜택이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에 갈 때 대학 지원서(Application)에 두 언어를 알고 있다고 하면 좋게 보인대요. 또, 미국 영화와 음악을 보고 듣는 것만 아니라 한국 영화와 음악

도 보고 들을 수 있어요. 그 뿐만 아니라 두 언어의 예능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볼 수도 있어요. 또 벌써 두 언어를 아니까 더 많은 언어들을 더 쉽게 배울 수 있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문화입니다. 배가 고플 때 햄버거와 피자, 아니면 미역국과 불고기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옷들, 한복도 아주 예쁘고 미국 스타일 옷들도 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할로윈하고 어린이 날을 둘 다 즐겁게 지낼수도 있지요.

그런데 두 언어를 배우자니 좀 헷갈려요. 많은 사람들은, 저도 포함해서, 두 언어를 섞어서 'Konglish' 를 말합니다. 미국에서 사는 코리안 아메리칸 애들은 'Konglish' 를 자주 씁니다. 그리고 두 언어를 배울 때, 두 언어의 문법과 발음이 좀 다르니깐 헷갈릴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두 개를 다니니깐 숙제는 더 많습니다. 히, 저는 이게 제일 혜택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람들과 동물들을 비교하겠습니다. 한국 진돗개 두마리가 미국으로 와서 애기 진돗개를 낳았을 때, 그 애기 진돗개가 미국 개일까요? 사람마다 다른 대답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제 엄마는 저한테 맨날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100% 한국 사람 그리고 100% 미국 사람이야!" 저는 이것을 들을 때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200%야? 그럼 내가 두 사람으로 보여? 말도 안돼... 치...'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에디슨이 어렸을 때 이렇게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디슨은 1+1=1이라고 설명했어요. "고양이와 쥐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쥐를 먹으면 고양이 한 마리만 남아 있지요. 또 물 한 컵에 또 한 컵을 부으면 물이 넘치고 아직도 물 한 컵만 있어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1 Korean + 1 American = 1 Korean-American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행복인지 불행인지 아직도 모르지만 그 애기 진돗개처럼 저의 모국은 두 개입니다! 한국과 미국. 저의 마음은 두 나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영원히 안 잊을 거예요. 누가 나의 정체성을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노지영입니다. I am Jieyoung Noh. 그리고 저는 100%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And I am a 100% Korean-American."

*제15회 재외동포문학상 초등부문 대상 (2013)/
재외동포재단



Korean Story Time

노옥남 선생님

우리 큰 딸은 지금 열 세 살이다. 그 아이가 태어나 세 살이 시작되면서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지역 도서관의 모든 스토리 타임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2살 미만의 Baby Story time, 2,3 살 아이들을 위한 Toddler Story time, 4,5 살 아이들을 위한 Preschool Story time, 온 가족이 함께 하는 Family Story time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특히 내가 관심이 있었던 프로그램은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Preschool Story time 이었다. 가족들의 참석을 유도하는 Family Story time도 많이 참석했지만 이 프로그램에는 책보다는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이 더 많았다.

이민 2세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은 삶의 기본을 튼튼하게 한다는 남편의 강한 신념 때문에 집에서는 무조건 한국어를 해야 하는 큰 애와 작은 애는 영어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도서관에서 다행히도 별 부담 없이 즐기는 것 같았다. 선생님을 따라서 대답도 잘하고... 영어를 알아들어서 라기 보다는 그림책을 읽어주니까 그림을 보니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모양인 것 같았다. 아이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라서 가까운 데 있는 도서관 외에 조금 더 멀리 있는 도서관까지 몇 군데 지역 도서관을 참석하다 보니 스토리 텔러 (storyteller)들의 스토리 타임 진행이 눈에 들어왔다.

Mukilteo 도서관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여자 선생님은 참 젊다. 그래서 그런지 그림책을 읽어주다가 기타를 직접 치면서 아이들과 함께 유치원 노래를 부른다. 아이들이 함께 신나서 따라 부른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너무 말이 빠르다. 내가 영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Lynnwood 도서관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선생님은 몇 분이서 번갈아 가며 한다. 여러 선생님들 중에서 사라 선생님이 할 때가 제일 좋다.

천천히 또박또박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데 얼굴 표정 또한 내용에 따라 바뀐다. 사라 선생님의 풍부한 그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Edmonds 도서관의 스토리 텔러 선생님은 정말 재미있다. 특히 유치원 아이들 수준의 재미있는 <손유희>를 준비해 온다. “거미가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우리 아이들은 신이 나서 따라한다. 거울에는 가짜 눈을 가져와 “눈”에 관련된 책을 읽다가 뿌려준다. 크고 작은 인형들을 병풍삼아 둘러놓고 책을 읽어주면 동화 속에 있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 아이들보다 내가 더 행복했었던 것 같다.

한번은 추운 겨울 저녁이었다. 좀 멀어서 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하루 종일 아이들이 집에 있는 것 같아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20분 정도 차를 타고 갔다. 스토리 타임을 진행하는 큰 미팅 룸에 들어가니까 아주 큰 하얀 천으로 무대를 꾸며 놓았다. 오늘은 어떤 그림책을 읽어주려고 하나 생각하면서 궁금해 하던 차에 하얀 천 뒤로 뭔가가 움직인다. 자세히 보니 하얀 천 뒤로 인형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림자 인형극을 보여 주었는데 그때 나는 아주 감동했다. 춥고 어두워서 도서관에 오기 싫었는데 정말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가. 아마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나도 저런 열심 있고 준비를 많이 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Bothell 도서관의 어린이 프로그램도 그런대로 괜찮았다.

매년 여름 방학이 되면 이 근처의 도서관끼리 서로 연계해서 [책 읽기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진행 한다. 책을 많이 읽으면 야구 티켓을 주거나 과학 박물관 티켓 등 다양한 상품을 준다. 참가하는 학생들에게는 마지막 날 아이스크림 파티를 열어 주거나 책을 나누어 주기도 한다. 지금 생각나는 것은 연극하는 사람들이 와서 연극도 해 주고.... 곰팡이가 썩은 것을 가지고 와서 곰팡이 책을 읽어주고... 해적에 관련된 책을 읽을 때는 해적 옷을 입고... 요정이야기를

할 때면 요정 인형을 가져온다. 별에 관련된 책을 읽을 때면, 별 전문가가 오기도 한다. 책을 읽어 준 후에 반드시 독후 활동이 있는데 책과 관련된 다양한 공작, 그림 그리기, 미니 연극 등 많은 활동이 있다.

큰 아이가 다섯 살 되는 때, 나는 한글학교 교사가 되었다. 우리 2세 아이들에게 한글을 정말 잘 가르쳐 주리라 다짐하면서, 보통 이곳에서는 다섯 살이 되면 킨더가든(kindergarten)에 입학한다. 우리 큰 애는 학교에 가면 하루 종일 영어만 할 텐데 집에 오면 한국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자기 정체성이 너무 확실하신 아빠 덕분에... 아빠에겐 고맙기도 했지만 아이가 조금은 힘들어 하는 것 같아 안쓰러울 때도 있었다. 그 당시에는 2세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교재 겸 보조 교재로 선택한 것이 “한글 그림책”과 “한글 동화책”이었다. 한글학교 아이들에게 한국어로 된 그림책을 읽어 주니까 아이들은 너무나 좋아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글을 잘 못 읽어도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니까. 어떤 날에는 한국어 그림책을 다 읽어주고 나니 한글 그림책이 더 없어서 미국 그림책을 읽어 주기도 했다. 물론 한국어로.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 근처에서 조금은 먼 Bothell 도서관에 가게 되었다. 어린이를 위한 도서 코너에 갔는데, 한쪽 벽에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다. “World Language Program” 포스터가 붙어 있고 중국어 스토리 타임, 스페인어 스토리 타임, 러시아어 스토리 타임이 있다고 하는데 한국어 스토리 타임이 없었다. 갑자기 애국심이 발동하여 어린이 담당 사서에게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코리안 스토리 텔러가 없단다. 그러면서 “World Language Program Workshop” 있는데 Korean Story time에 관심이 있으면 참석을 해보라고 권유한다. 꼭 코리안 스토리 타임 텔러가 된다고 보다 그때 나는 한글 그림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읽어줘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워크샵에 참석했다. 50명 이상의 각

국의 스토리 텔러들이 모여서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훈련을 받았다. 대부분이 이중 언어 교사들과 유치부 교사들인 것 같았다. 그곳에서의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기에 한글 그림책을 읽어 주고 독후 활동을 풍성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우리 집 근처의 지역 도서관에서 연락이 왔다. 코리안 스토리 텔러가 필요하다고... 조금은 망설였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은지라, 나도 무언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지 하면서 코리안 스토리 텔러가 되었다. 정말 바쁘게 시간을 보냈다. 인터넷으로 재료들을 주문하고 한국에서 아시는 분이 좋은 한글 그림책을 보내주시고... 우리 한글학교 아이들도 많이 참석했다. 예전에 우리 큰 애와 작은 애를 데리고 참석했던 스토리 타임들이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되어서 나도 신나고 다양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

지역 도서관에서 코리안 스토리 타임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를 시도했었는데 가장 재미있었던 것 중 하나가 “홍부 놀부”, “콩쥐 팥쥐”, “도깨비와 개암나무” 등 옛날 우리 이야기로 한국어 연극을 시도했던 것이다. 그 중 “홍부 놀부”를 처음으로 준비했을 때가 생각난다. 한글학교 우리 반 학생들을 모아서 연극 연습을 준비했다. 정말 재밌게 하리라 다짐하면서... 대본은 인터넷을 뒤져서 아주 짧고 쉽고 재미있는 대사를 찾았다. 그리고 아이들이 대본 연습을 하고 소품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으로 골랐다. 아이들은 아주 큰 도화지에 놀부의 집과 홍부의 집을 그리고 색종이를 붙이고 색깔 티슈 페이퍼로 입체감 있게 집을 만들었다. 한복은 각 자가 집에 있는 것을 가져오거나 빌릴 수 있으면 빌리자고 했다.

한글 단어와 한글 문법을 공부할 때는 그럭저럭 또는 지루하다며 따라오던 몇몇 아이들이 연극을 한다니까 눈이 초롱초롱 빛났다. 책을

몇 번이나 읽어 주고 또 아이들 자신들이 읽어가며 함께 인터넷을 통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했다. 재미있는 것은 놀부 집보다 흥부 집이 더 멋있게 만들어졌다. 왜냐하면 흥부 집을 그림 그리고 만든 것은 미술에 솜씨 있는 고학년 여자 아이 위주로 정성껏 준비됐고 놀부 집은 저학년 여자 아이와 저학년 남자 아이들이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는 했는데 흥부 집이 더 멋있게 되어 버렸다. 그래서 아이들은 모두 놀부 집 보다는 흥부 집에 살고 싶다고 해서 폭소를 터트리기도 했다.

어떤 소품들은 함께 준비했다. 예를 들어, 박을 위해서는 큰 바구니 두 개를 함께 겹쳐서 큰 투명테이프로 붙이고, 박을 썰어야 하는 큰 톱은 두꺼운 도화지로 만들어서 뽀족뽀족하게 가위로 오리고, 제비 역할을 맡은 아이는 엄마가 제비 날개를 천으로 만들어 주셔서 진짜 제비가 된 것처럼 열심히 했다. 다른 제비 역할을 맡은 아이는 다리 부러진 표정을 하는데 정말 다리가 부러진 것 같이 했다. 평소에 한글 공부가 어렵다고 한 아이에게 제비 역할을 맡겼는데 어찌나 잘 하는 지. 표정 만점, 대사를 다 외운 것은 기본, 그 아이는 제일 먼저 자기 역할의 소품을 만드느라 가장 많이 바빴다. 제발 그렇게 한글 공부도 잘 해 주었으면....

연극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만 있다면 매주 한국어 연극을 하고 싶을 정도였다. 대본을 외우면서, 또 행동을 하나하나 하면서 얼마나 많이 웃었고 얼마나 많이 웃겼던지... 정확하지 않은 발음 때문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실제로 연극을 공연한 날보다 연극 연습을 한 날이 더 행복했던 것 같다. 지금도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연극 연습을 한 것이 기억에 더 난단다.

지역 도서관에서 연극을 하던 날, 부모님들도 조마조마, 우리 아이들 모두가 상기된 얼굴로 모였고 호기심 많은 다른 나라 아이들이 슬쩍 슬쩍 들어오더니 관객들 맨 뒤에 앉아서 구경한다.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해도 뭔가 굉장하

재미있는 것을 하는 구나하며 즐겁게 지켜이 구경하면서 입가에는 연신 미소가 흘러나온다.

흥부와 흥부 아내가 톱질을 한다.

“톱질하세,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우리 함께 나눠 먹세.“

흥부와 흥부 아내가 톱질을 할 때 모두들 흐뭇해 했다.

“톱질하세,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너는 절대 안 줄 거야.“

놀부와 놀부 아내가 나와서 톱질을 하는데 박이 갈라지고 도깨비들이 나왔다. 도망가는 놀부, 쫓아가는 도깨비....모두들 우하하하 ~

부모님들은 사진 찍으시라 아이들이 연극하면서 실수하는 것을 보면서 웃으시라 마냥 바빴다. 드디어 연극이 끝나고, 참석한 남자 아이들은 놀부의 정자관을 종이로 만들어서 머리에 쓰고 “에헴 ~” 한번 소리도 쳐 보고, 다른 아이들은 풍선을 불고 종이 나뭇잎을 만들어 풍선박을 만들어 보았다. 외국 아이들도 신기한 듯이 함께 만들고 한국 애들은 이것이 어떻고 저것은 뭐고 영어로 열심히 설명을 해 준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한글 공부하는 아이들 앞에서 매주 신나고 재미있는 한국어 연극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 주변에서는 코리안 아메리칸 2세들에게 한글을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드물었다. 한국인 부모님들조차 미국에 사는 데 왜 한글이 필요하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인 2세라면 무조건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추세이다. 미국 학교의 선생님들도 모국어를 가르치라고 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최소 1년에 1번 정도 학부모와 교사의 만남 (School Conference) 이 있다. 우리 큰애가 다섯 살 때, 컨퍼런스에 갔었는데 담임선생님은 부모의 모국어를 반드시 가르치라고 하셨다. 아이가 자라면 이중 언어를 하기 때문에

큰 유익이 될 거라고. 그 말에 나는 동의한다. 단순히 좋은 직업을 얻는 것을 넘어서서 부모의 문화를 알고 배우는 것은 이 넓은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지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 2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것이 그 관계들을 위해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넉넉할 수 있지 않을까.

4년 전에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을 방문했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한국어로 얘기하는 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자랑스러웠다. 친척들도 깜짝 놀랐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계속 살아 온 아이들이 맞느냐고. 칭찬을 많이 받으니 아이들은 좋은가 보다. 비록 힘들었지만 남편과 나의 수고는 헛되지 않았다. 그런데 큰 애와 둘째 애는 둘만 있으면 영어로 얘기를 한다. 영어가 편한가 보다.

요즘에 한국에서 조기 유학생들이 많아졌다. 우리 한글학교 학생들 중에는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번번이 통역을 부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도 자부심이 대단하다. 선생님이 똑똑하다고 칭찬하시니까. 친구들이 이중언어 한다고 대단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한국어를 해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아주 다행스런 일이다.

지난주에도 한글 수업을 하는데 숙제를 안 해온 아이가 있었다. 이 아이는 가끔씩 숙제를 한다. 그것도 급하게 하느라 철자를 소리 나는 대로 써 온다. 또 이 아이는 장난을 잘 친다. 이 아이의 성향이 차분하기 보다는 아주 외향적이다. 공부에 열심히 하지 않는데 아이디어는 기발하다. 이 아이는 흥분 놀부 연극을 할 때 여러 마리 제비 중 하나의 제비 역할을 맡은 아이이다.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오다시피 한글학교에 왔다가 정을 못 붙여서 고민하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한국어 연극 연습을 하면서 한글과 많이 친숙해 졌고 몇 년 전

보다는 공부하는 태도도 훨씬 좋아졌다. 물론 나이도 많아졌지만 이제는 스스로도 한국어를 공부해야 한다고 아는 것 같다.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이 모두 모범생 같고 예쁘기만 한다면 선생님이 얼마나 편하고 좋을 까? 물론 이런 아이들도 우리 한글학교에 많이 있다. 가르쳐 주면 가르쳐 주는 대로 얼른 꿀꺽 받아먹고 얼마나 응용도 잘하는지. 이런 아이들이 많다면 선생님들은 좋을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나는 한글 공부하기를 지루해 하는 아이들 때문에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게 되었다. 나로 하여금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 가도록 재촉해 주는 우리 한글학교 아이들 특별히,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 힘들어 장난치다가도 선생님이 웃으면서 한번 췌려보면 미안해서 미소를 보내 주는 이 개구쟁이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 더 고맙고 그들을 위해 오늘도 나는 책과 인터넷 사이를 왕래하며 행복한 고민을 준비한다.

* 제3회 국내 및 해외 한국어 교육자 체험 수기 공모 우수상 (2012) / 디지털서문문화예술대학교



느티나무 한글학교



제2013-46호



제15회 재외동포문학상
한글학교 특별상

느티나무한글학교(미국)

위 학교는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는 '제15회 재외동포문학상' 공모
에서 우수한 작품을 출품하여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한국어 교육에 크게
기여 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13년 9월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조 규



www.neutinamukoreanschool.org

2004. 7. 느티나무 한글원 설립

2010. 느티나무 한글학교로 명칭 변경

2013. 제15회 재외동포문학상 한글학교 특별상 수상